

겨자씨.

2020
WINTER
VOL.39

08
곽승현 위임목사 신년 인터뷰
거룩한 빛 흠뻑 머금고
발산하는 2020년 되기를

18
투데이 칼럼
위라벨 시대
일과 생활과 신앙의
바람직한 균형
이찬영

20
포커스
현시대에 나타나는
이단과
그 대처 방안
탁지원

31
2020 특별기획
한반도에 핀 순교의 꽃①
주기철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다"
오성한

02
초대시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문효지

06
사뉘갠에 심은 나무
초록별 지구에게 쓰는 편지
정연희

WINTER SPECIAL THEME

거룩한 빛!
다시 비추소서!





사진 · 박해준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 문효치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닿기만 해라

허공에 태어나
수많은 촉수(觸手)를 뻗어 휘젓는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닿기만 해라
가서 불이 될
온몸을 태워서
찬란한 한 점의 섬광이 될
어디든 가서 닿기만 해라

빛깔이 없어 보이지 않고
모형이 없어 만져지지 않아
서럽게 떠도는 사랑이여

무엇으로든 태어나기 위하여
선명한 모형을 빚어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닿기만 해라
가서 불이 되어라



문효치

- 서울신문, 한국일보 신춘문에 당선
- 시집 『왕인의 수염』, 『모데미풀』, 『나도바람꽃』
- 김삿갓문학상, 정지용문학상, 익재문학상, 한국시협상 등 수상
- 現 계간 『미네르바』 대표

- 02 PROLOGUE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 04 목양실 편지 | 광승현 위임목사
거룩한 빛! 다시 비추소서!
- 06 시냇가에 심은 나무 | 정연희
초록별 지구에게 쓰는 편지
- 07 2020 WINTER Special Theme
거룩한 빛! 다시 비추소서!
- 08 테마 인터뷰 | 광승현 위임목사
거룩한 빛 흠뻑 머금고 발산하는
2020년 되기를
- 14 선교지 밀알 | 탄자니아 김한주 선교사
프리스카가 꾸는 꿈을 가난과 무지로 방임
되고 있는 아이들이 함께 꾸길 소망합니다
- 16 희망나눔 | 강이녀 새가족위원회 부위원장
목사님과 동역자라는 생각으로 새가족 봉사
- 18 투데이 칼럼 | 이찬영
워라벨 시대
일과 생활과 신앙의 바람직한 균형
- 20 포커스 | 탁지원
현시대에 나타나는 이단과 그 대처 방안
- 24 ON LOVE | 전용대
다리가 되어
- 26 1월의 향기 | 최형만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 28 아름다운 교회로의 여행 | 김제 금산교회
주인과 머슴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세운 교회
- 30 성경 속 인물 초대
오네시모(Onesimus)
- 31 2020 특별기획 한반도에 핀 순교의 꽃①
주기철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라”
- 37 김민수 목사의 들뜬편지 겨울
동백, 예수님을 닮은 동백
- 38 사랑합니다
교회 밖 아이들 위한 열린 교육 사역
학원 사역위원회 좋은학교만들기팀
- 40 찬송가 산책 | 369장
죄짐 말은 우리 구주
- 41 청년광장
- 42 핫이슈
청년의 때,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2
- 46 함께 읽고 싶은 글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으며
- 48 WE
2020년 청년부 회장으로 선출된
양한나 자매
- 50 내 삶의 멘토
과정의 성실함을 일깨워주신
정 선생님!
- 51 문화산책
- 52 마음이 머무는 갤러리
동심
- 53 찻잔 속의 꽃향기
한 겨울 추위를 녹이는 정열의 화신,
동백꽃차
- 54 수필
과부 황새와 흑두루미
- 56 강혜미 기자의 고전 영화 TOP4
죽은 시인의 사회
- 58 여행, 스토리를 담다 | 폴란드
풍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역사를 보고 나를 보고
- 60 BOOK AND BOOK
- 61 정성진 목사 신간
- 62 크로스로드선교회
- 63 광성 계시판
광성 상공인 올 온라인 비즈북
- 64 거룩한빛광성교회를 소개합니다
- 65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거룩한 빛! 다시 비추소서!



사진 · 김연철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가 가고 희망의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떨리는 가슴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23년 동안 거룩한빛광성교회를 목회하신 정성진 목사님께서 지난해 11월 24일 저에게 목회 배턴을 넘겨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3-14]

배턴을 위임받은 저와 우리 성도들은 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20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개척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름에 걸맞은 교회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 노력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한국 교회의 소문난 교회요 좋은 교회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모로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인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서서히 꺼져만 가는 듯합니다. 이러한 어두운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제2기 거룩한빛광성교회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땅에 거룩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거룩한 빛! 다시 비추소서!'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거룩한 복음의 빛을 다시 비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동시에 성도들 모두가 빛의 근원되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거룩한 빛을 비추려면 성도들 심령 속에 빛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거룩한 빛을 다시 힘차게 비추는 은혜의 2020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12]

2020년 1월 1일 위임목사 박승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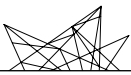


사진 · 박해준



글 · 정연희(소설가)

우주 공간에 뿌려진, 헤아릴 수 없는 별 중에 지구라는 별 하나, 다른 별이 지구를 바라볼 때, 지구는 에메랄드빛으로 빛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초록별에 초대되어 살고 있는 손님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보다 아름다운 별은 또 없을 것입니다. 아름답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그렇게 비밀한 사랑이 나를 초록별을 떠나고 싶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영혼이 초록별 지구의 신음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때로 산이 우우, 고독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맑고 맑게 흐르던 강물이, 쓰레기에 뒤섞여, 검은 눈물이 되어 흐르는, 목 메인 소리가 들립니다. 그토록 넉넉하던 바다가 고통으로 웅틀임하는 바다 신음이 들립니다. 지구 둘레의 하늘이 쿵쿵쿵쿵 기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대지에서 무한정 기름을 뽑아 올리고, 곳곳에 관정을 뚫고 물을 뽑아내 대지가 혈떡거리는 숨소리가 들립니다.

여름 휴가철이면 팔당 식수가 쓰레기장이 되고, 바다며 산마다 구겨 던진 쓰레기로 뒤덮여, 인간의 무정함을 두고, 산과 들이 앓는 소리를 낼 때, 나는 내 영혼을 베어 임종 앞둔 어머니에게 손가락 깨물어, 선혈을 흘려 넣듯,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용서를 비는 편지를 씁니다. 아직도 피고 지는 작은 풀꽃 하나의 신비와, 영혼의 우물처럼 마당 가득 차는 달빛 아래, 어디선가 영롱하게 흔들리고 있을 별빛을 향해, 눈물 머금고 연듯빛 닮은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망가져 가면서도, 초록별은 인간에게서 첫정을 거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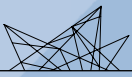
지 않고, 맑은 공기와 청량수의 꽃들을 선물하고 열매를 주며, 사람 살아갈 길을 터 주고 있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치유의 손길을 건네줍니다. 불면증을 앓는 이에게는 풋대추의 씨, 안개꽃 아이리스로 잠을 보내 주고, 충혈된 눈에는 아스파라거스, 리벤더 향이 눈을 맑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메밀껍질, 녹두껍질, 결명자, 국화초가 청뇌명 목침을 만들어 두풍열을 내려 주며, 단잠을 불려다 주고 혈압도 다스려 주고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산도, 강물도 숲도…… 모두가 살아 있어, 우리와 생명 나눔의 이야기를 이어가자는 이웃입니다. 생명은 서로를 알아보는 따뜻한 언어입니다. 살아있음의 아름다움과 스러져가는 것들이 안고 가는 영원한 의미까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의 친정이었던, 경기도 처인군 백암면과 안성 삼죽면의 산 둔덕입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늘 시골이 그리워 방학 때면 외가나 고모 댁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지금보다는 순하던 시절의 살림 향기를 아직도 잊지 못해, 그 시절의 추억을 편지로 쓰면서 초록별 지구에게 위안이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골짜기, 명리도, 권력도, 돈도 어울리지 않는 산골에 살면서, 별들의 언어를 익히고, 슬픔의 되새김질에서 이별의 아름다움을 배워 가며, 내가 초대되어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에게 끝없는 편지를 씁니다.

- 안성 삼학동산에서 -

거룩한 빛! 대이비추소서!





※ 2020년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빛을 흠뻑 머금은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2021년부터 거룩한빛광성교회 5대 비전을 매해 한 가지씩 구체화시키겠다는 목회 6년 로드맵을 세운 광승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 2기 출발! 박승현 위임목사

소통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20년 도약

거룩한 빛 흠뻑 머금고 발산하는 2020년 되기를

취재 · 전영의 / 사진 · 김연철

거룩한빛광성교회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박승현 목사는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와 5대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전심전력하며,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눈물을 끌어안고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광성 2기 목회 비전을 밝혔다.

주일 학교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관 건립, 청년들이 마음껏 집회할 수 있는 음향과 영상 시스템이 구비된 독립적인 예배 공간 마련, 젊은 부부를 위한 예배부 신설, 삼사십 대를 목회 동력으로 세우기 위한 3040프로젝트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변화해야 할 교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혁·개발한다는 목회 로드맵을 세웠다.



⤵ 다음 세대를 위한 금요 기도회. 박승현 목사는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내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린 다니엘 기도회, '교회와 담임목사'를 위한 기도 시간,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의 두 팔을 올린 광승현 목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뜨거운 시간이었다

2020년 거룩한빛광성교회 표어를 <거룩한 빛! 다시 비추소서!>로 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난 23년 동안 정성진 목사님께서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를 강조하시며 세상과 지역 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쳤고, 거룩한 빛을 비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셨는데 이번 <거룩한 빛! 다시 비추소서>는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거룩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의미하고, '다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예배, 목장, 가정, 직장 가운데 강하게 비취지고, 그 빛을 성도들이 충분히 머금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 잠시 멈추어 사역을 돌아보고, 정비하고, 기름칠하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목회 1기에 해당하는 6년 로드맵을 말씀해 주세요.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은혜와 힐링과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나면, 2021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5대 비전 지역 사회 문화 중심, 고양 파주 성서 본부, 한국 교회 개혁 모델, 북한 선교 전초 기지, 세계 선교 중심 센터' 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즉 6년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 영적 재충전, 21년부터 5대 비전을 한 가지씩 매년 단위로 좀 더 구체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거룩한빛광성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1교구부터 10교구까지 매주 목자 모임에 참여하면서 광성 2기에서의 제 역할이 명확해졌습니다. 정성진 목사님께서 거룩한빛광성교회를 넘어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하셨지요. 정 목사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면 저는 자식들 밥 지어 주고, 학교 갔다 오면 안아 주고, 숙제 봐 주는 다양한 엄마이고 싶습니다.

지난해 시무·사역 장로님 가정을 심방하면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원지,

아침이면 햇살이 수많은 생명의 길을 열 듯, 강물이 꺾어지고 휘돌며 물길을 내고
문명을 꽃피우듯,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한 걸음도 그렇게 열렬할 수는 없을까?
곽승현 목사는 거룩한빛광성교회의 2020년이 그 어느 해보다도
거룩한 빛을 흠뻑 머금고 발산하는 뜨거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눈물이 뚝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성도들과도 갖고 싶었는데 만 명이 넘는 성도들의 기정을 일일이 심방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매주 한 요일을 '심방의 날'로 정하여 1교구부터 차례로 목장 모임에 참여해서 성도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늘 성도들 곁에 머무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역동성 있는 광성 2기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삼사십 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사십 대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삼사십 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목회의 동력으로 키우려면 이들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함께 개발되고 갖춰져야 합니다.

먼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삼사십 대 자녀를 위한 교회 내의 환경입니다. 보통 자녀를 1명 낳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회의 시설, 환경, 교육 여건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삼사십 대의 관심 분야들, 이룰테면 사회적인 이슈, 아직 의 문제 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교회가 함께 공감하고 대안을 열어 줄 수 있는 장,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세대를 위한 환경적인 부분이 개선되어야 삼사십 대를 잘 규합하여 제자화 하고, 교회의 중심 기둥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교육관 건립입니다. 장로님들과 그 대안책을 논의 중이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키우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2019 바이블 하이킹'을 마친 소감과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또 '2020년 바이블 하이킹'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가장 큰 기쁨은 300여 명의 성도들과 한 공간에서 말씀을 읽고 호흡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다 의문이었던 곳이 오늘 풀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니 참 좋습니다." 등 성도들의 반응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어 예배와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해는 신구약 통독을 한 해에 마쳤는데 직장인들에겐 하루하루 읽을 수 있는 구약의 범위가 좀 버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 구약통독, 2021년 신약통독, 2022년 성지순례' 3단계로 바이블 하이킹을 진행할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의미, 문장의 구조, 어휘, 표현 등을 세세하게 살피며 숲과 숲 속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두루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이블 하이킹 겨울 특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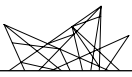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디도와의 차(茶)한 잔>이라는 강좌명으로 디도를 집중적으로 여행합니다. 달리던 것을 멈추고, 산장에서 따뜻한 차도 마시고, 걸으면서 대화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웅기종기 모여서 나누는 심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게 되는데 율법은 무엇이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하기 전에 율법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의 일차적인 의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고, 확장해서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쁨의 소식을 말합니다. 진정한 복음이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때



◀ 박승현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함께 부르짖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다

문에 인정받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성수 해야 하고, 십일조 생활 해야지요. 선을 행하고, 빛 된 삶을 살아야지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복음 이 첨가되지 않으면 그 속에는 율법만 남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감격 속에서 봉사하고 삶 이 엮어질 때 우리의 삶은 율법의 구속적인 삶이 아닌 자발적인 복음의 삶이 되지요.

많은 크리스천이 율법을 무겁게 이해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유치원 가는 아이에게 "철수야, 횡단보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야 돼.", "철수야, 누가 사탕 주면서 따라오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아이에게 엄마의 이 당부가 무거운가요? 이것은 아이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한 엄마의 사랑 입니다. 율법은 법제화해서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조언이요 사랑입니다.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번아웃 증후군으로 회의감과 무력감을 호소하는 것처럼 열 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크리스천 또한 '신앙의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겪는 것이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육체를 비롯하여 지성, 감정, 의지의 영역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전인

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보는 자리에서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고, 일곱 번 기도해서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멈추게 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인데요, 그랬던 그가 이세벨이 무서워 광야로 도망치는 것도 모자라 죽여 달라고 하나님께 청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나를 묵상해보면 번아웃이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심방 등으로 늘 바쁜 목회자들이 사실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영적으로 충만했고 사역은 완벽하게 했는데 어느 한 순간에 무너지는 목회자를 보면 전인적인 돌봄이 없었던 것입니다.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여행, 영화 감상, 독서 등 취미 활동을 통해 정서를 채우고, 사역을 떠나 하나님을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즉 육체적인 쉼, 정서적 쉼, 영적인 쉼이 균형을 이룰 때 신앙의 번아웃 증후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성경 공부, 봉사, 취미 활동 등의 이유로 몇 군데의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한 사람이 두세 곳의 교회를 출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 개인주의적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요즘 크리스천의 한 추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백향목 선교팀'을 보면 여러 교회 교인들이 모여요. 불신자도 있고요. 한 가지 원칙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헌금 생활을 하고, 영적인 훈련과 섬기는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잘 훈련받고 돌아가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일꾼으로 큰 힘이 된다면 좋은 일이지요.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야 신앙이 성장하고 건강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마음에 두지 못한 체제와 같은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 전도(길거리에서 음료를 나눠주거나 버스정류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티슈나 비누를 나눠주며 교회에 올 것을 권하는 방식의 전도)는 많은 교회에서 시도하는 전도 방식 중 하나인데, 이렇게 접근하여 신앙을 권하는 방식의 전도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이 없을까요?

전도 방식은 분명 새로워져야 하지만 길거리 전도에 대해서는 존경과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전도지를 받아서 교회 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제가 먼저 목회하던 충추총일교회도 화요일마다 전도팀이 고속버스 터미널로 전도를 나갑니다. 어느



㉠ 박승현 목사 위임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에서 함께 지리한 박승현 목사와 이미경 사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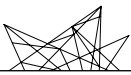
주일, 한 분이 전도지를 들고 교회에 왔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도지를 우연히 본 거예요. 노방 전도가 효과적인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부도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도지를 주면 냉소적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세상의 반응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전도가 개발되어야 하지만 교회의 본질과 정의로움 또한 되살아나야 어떤 방식의 전도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언제 무겁다고 느껴지십니까?

정성진 목사님께서 아사교회생(我死敎會生)으로 세운 교회의 후임으로 온 것 자체가 가장 무거운 계명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라며 거부했고, 많이 씨름을 했었지요.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냐. 내가 같이 짊어질 거야’라는 하나님의 설득에 발을 내디뎠지만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 채워지고, 저 같은 자에게 거룩한빛광성교회 목회를 맡기신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제 속에 충만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하며 목회할 것입니다.



블랙 티 한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마사이 부족

프리스카가 꾸는 꿈을 가난과 무지로 방임되고 있는 아이들이 함께 꾸길 소망합니다

글 · 김한주 선교사(탄자니아)

✧ 세겜교회 어린이들과 함께, 김한주 선교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았다”

제가 처음 마사이 마을 세겜교회를 방문했을 때 목사님께서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탄자니아 북부 케냐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나랑가라는 깊은 사막 속 마사이 마을에 개척한 지 10년쯤 된 마사이교회에는 6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매일 모여 알파벳과 숫자를 배우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아침에 먹고 온 것은 블랙 티 한 잔이 고작입니다.

1. 세계교회 유치원 어린이들. 목사님, 사모님께서 매일 아침 어린이들과 함께 기도하루를 열고 영어, 스와힐리어, 수학을 가르치신다
2. 마사이 지역에 위치한 세계교회
3. 마사이 도시 빈민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 도심에 있는 유치원이라 한국처럼 몬테소리 교구와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
4. 마사이 로시노교회 유치원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모습. 마사이 지역에서 공책이나 연필을 구하려면 허룻길을 나와 사가야 하는데, 학부모나 유치원에 그럴 여력이 없어 개인 칠판과 학습지를 만들어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있다



마사이들의 일생

아침에 블랙 티 한잔을 마시고, 아버지를 따라 넓은 사막을 소와 염소를 끌고 하루 종일 헤매다 돌아와 옥수수과 콩을 삶아 만든 마칸데 한 그릇을 먹는 것이 보통 마사이 남자아이들의 하루 일과이면서 일생이기도 합니다.

여자아이의 경우 12~13세가 되어 첫 월경을 시작할 즈음이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들끼리 약속한 곳으로 시집을 가는데, 보통 3~4번째 부인으로 갑니다. 결혼 전까지도 어머니를 도와 3~4킬로 떨어진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땀감을 모으는 일을 합니다. 물론 결혼해서도 같은 일과를 반복하는 것이 마사이 여자들의 일생입니다. 교육을 받는 여자아이들은 극히 소수이며, 남자아이들의 경우도 아버지가 선택한 한두 명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버지를 따라 염소와 소를 몰고 초원으로 나가 일생을 보냅니다. 마사이 부족은 탄자니아 45여 개의 부족 중에서 가장 강하게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며 급격히 도시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유목이라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았으면

빅트리 파운데이션(Big tree Foundation)은 이러한 가난과 교육에 소외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하루 한 끼의 끼니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교회와 가까운 지역의 로시노교회 유치원에는 50여 명의 어린이들이 매일 모여 성경과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맛있는 간식을 제공받습니다. 이곳의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의 간절한 바람은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 노동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고 꿈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유치원 교육의

제공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갈 수 있도록 장학생을 선정해서 중등 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 빈민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적인 도시화로 인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마사이들을 위하여 아루샤 도시 지역 도시 빈민, 특별히 유목 생활을 포기하고 도시로 밀려 들어와 행상이나 일일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마사이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마사이 부족이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동에 시달리는 부모들은 아이를 돌볼 틈이 없고, 할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아이가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방임됩니다. 아루샤 마운트 카르멜(갈멜산)유치원은 이렇게 방임되는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35명의 어린이들은 매일 아침 유치원에 등원하여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또 집에서 제공 받지 못하는 간식과 점심을 먹고, 초등학교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교육받으며, 부모님이 일과를 마치고 올 때까지 방과 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마운트 카르멜유치원 어린이의 절반이 한국에서 학비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인 마사이 여학생 프리스카가 제게 보낸 편지가 생각납니다. 중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게 되어서 고맙다는 편지였습니다. 프리스카가 꾸는 꿈을 탄자니아의 가난과 무지로 방임되는 아이들이 함께 꾸길 원합니다. 프리스카가 가지는 희망을 이 아이들도 같이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탄자니아 땅이 이 아이들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교육할 때 그들 스스로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스마일 권사
강이녀 새가족위원회 부위원장

목사님과 동역자라는 생각으로 새가족 봉사

취재 · 김용기 / 사진 · 박승언, 새가족환영팀



예배 봉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새가족환영팀원

내 집에 온 귀한 손님

“처음 교회에 오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그들이 처음 아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다시 교회에 오면 챙겨 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요. 그러면 교회 정착이 훨씬 빨라지지 않을까요?”

주일이면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환한 미소로 교인들을 맞는 스마일 권사 강이녀 새가족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났다.

12년째 새가족환영팀에서만 봉사하고 있는 강 권사는 “새가족은 내 집에 온 귀한 손님”이라며 “전도로 한 분을 교회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안다며 최대한 편안하고 기쁘게 맞이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새가족환영팀은 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며 주일 봉

사를 위해 토요일부터 준비한다. 강 권사를 중심으로 팀원들이 토요일에 교회로 모여 기도와 말씀 묵상과 새가족실 청소와 꽃꽂이 등 새가족을 맞을 준비를 시작한다.

육신의 고난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강 권사가 이처럼 교회 봉사에 열심을 보이는 데는 사연이 있다. 모태 신앙으로 세상과 교회를 겸하여 섬기던 강 권사에게 헌신적인 봉사의 삶을 살게 한 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이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활기차게 생활하던 강 권사는 15년 전 위암 판정을 받고 위의 3분의 2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다.

“병원 입원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2천 명이 넘



« 새가족팀원이 예배당 본당에 마련된 새가족석에서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새가족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는 교우들의 중보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몸에는 병이 있었지만 회복하리라 확신과 함께 남은 생을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암에서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생업에 뛰어들려 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강 권사는 미용 기술을 이용해 교회 봉사를 하며 감사와 기쁨을 회복했다. 미용 봉사로 시작한 교회 봉사는 점차 영역을 넓히며 새가족 환영팀에서 봉사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새가족환영팀의 봉사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같아요. 새가족을 대할 때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긍휼함이 느껴져요. 저의 작은 봉사로 목사님과 동역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로 표현

긍휼함이 교회 봉사의 원동력이라는 강 권사는 시편 쓰기를 3년째 계속하며 시편 묵상을 통해 받은 은혜를 시로 승화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 살고 있다.

“건강을 위해 자연을 보며 걷기를 자주 해요. 시편을 쓰고부터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떠올라 감사하게 됐죠. 주시는 은혜를 메모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를 쓰게 됐어요.”

시 쓰기를 배운 적이 없다고 겸손해 하는 강 권사는 그동안 60여 편의 시를 써 주변 지인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기쁨을 전하고 있다.

“봄을 시샘하는 찬바람에 봉우리를 티우지 못하고 떨고 있는 진달래의 가녀린 봉우리를 보는 순간 낙약한 인간의 삶을 떠올렸어요. 그런 마음을 담은 시가 ‘진달래’예요. 몇 해 전 5월의 주일에는 교회 정원 바닥에 눈처럼 흩어져 있는 꽃잎이 너무 아름다워 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게 됐다는 강 권사는 “꽃 한 송이 꽃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듬뿍 배어 있는데 하물며 한 사람의 새가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에 새가족을 떠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새가족환영팀은 교회의 얼굴이자 안내자

강 권사가 봉사하는 새가족환영실은 언제나 새가족들로 북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반드시 들려가야 하는 교회의 안내소인 동시에 교회의 비전과 목회 사역을 소개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새가족이 예배를 마친 후에 위임목사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우리 교회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한 부서”라는 강

권사는 “밝은 인상을 주려고 팀원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새가족환영팀은 교회의 로비와 2층 본당, 3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방문하는 교인들을 따듯한 인사로 맞이하고 있다. 16명이 봉사하며 처음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2층 본당 새가족 자리로 안내하고,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교회 등록을 하게 하고 교회 정착을 돕기 위해 새가족양육팀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새가족환영팀이 속해 있는 새가족위원회에는 환영팀과 양육팀, 섬김팀, 오병이아팀, 차량팀, 바나바팀, 드보라팀 등 7개의 봉사팀으로 구성되며, 새가족 양육팀은 새가족을 대상으로 4주간의 교회 소개 교육을 진행해 새가족이 교회에 쉽게 적응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새가족환영팀은 교회의 얼굴이자 안내자라는 강 권사는 “아름다운 외모로 깔끔한 인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팀원들과 기도와 성경 묵상을 같이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한다.



1. 모처럼 비번 시간을 쪼개서 야외회를 갖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2. 팀원들이 새가족 섬김 봉사를 마치고 화식 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워라벨 시대 일과 생활과 신앙의 바람직한 균형

글 · 이찬영(기록과미래연구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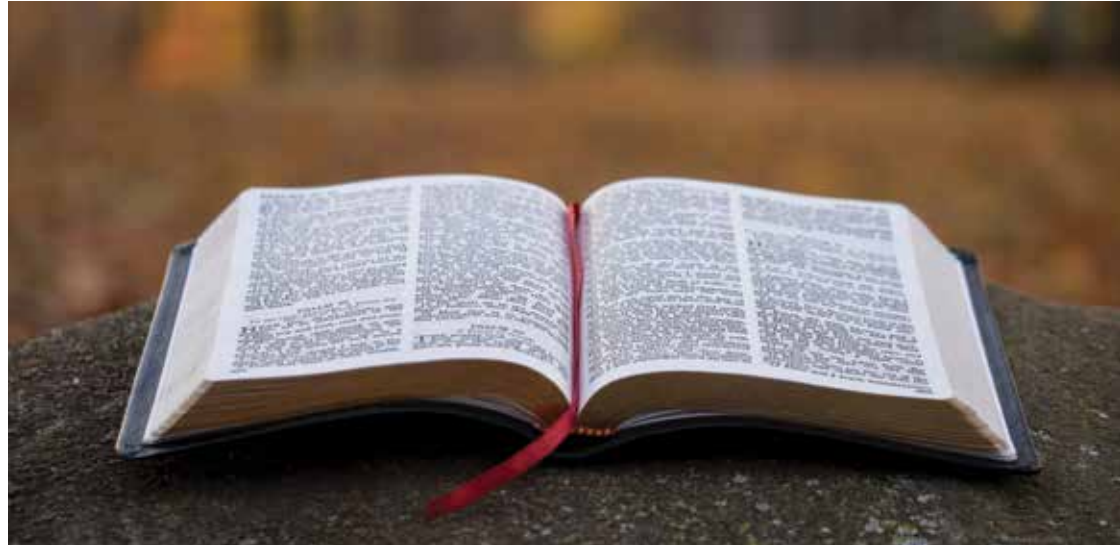
‘워라벨(Work-Life-Balance)’이란 말은 젊은 세대들이 일(Work)과 개인 삶(Life)의 균형(Balance)을 중시하는 경향에서 생긴 신조어이다. 이들은 희생, 도전, 일 우선의 가치보다 자신, 여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중시하고 이를 좋은 직장을 구분하는 중요 키워드로 삼는다. 뒷세대가 자신의 건강, 가정을 돌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데 대한 반작용이다. 그런데 이제 뒷세대이건 신세대이건 이미 워라벨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왜냐하면 누구나 건강 관리를 하면 100세쯤은 넉넉히 살게 되어 인생은 진정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 달리기가 되었고, 종착지까지 건강하게 완주하려면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에 치우치면 개인 삶과 건강이 희생되고 개인 삶에 치우치면 일의 결과가 빈약해져 삶에 쏠들리게 된다. 둘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오랫동안 생산적이고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풍성한 워라벨을 위해 기독교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찬영 『어른의 홀로서기』, 『기록형 인간』, 『플래너라면 스케투처럼』의 저자. 기록과미래연구소 대표. 신개념 주간 플래너 스케투(scheto)와 학생용 학습플래너 꿈스(ggooms) 개발자이자 메모관리 종합플랫폼인 에버노트(Evernote) 공인 컨설턴트(ECC)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자기계발 콘텐츠로 글을 쓰고 강의하고 있다.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자

일과 개인 삶의 관계에 대해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다. 마치 일과 개인 삶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즉 일과 관계없이도 개인 삶을 풍성히 즐길 수 있고, 개인 삶이 엉망이어도 일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과연 그런가? 회사의 프로젝트가 처절히 망가진 날 저녁에 남편이 개인 삶을 즐길 수 있는가? 가족과의 불화로 뒤숭숭한 마음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가? 일과 삶은 비록 시간적으로 분리돼 있을지라도 내



24시간 안에 한통속으로 묶여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니 일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려면 풍성한 개인 삶이 전제되어야 하고, 개인 삶의 영역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채우려면 일에 집중하여 성과를 내야 한다.

이 순환 논리의 첫 단추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주로 직업의 형태로 우리의 일상 시간을 차지하며 생계유지를 가능케 하는 일을 일컫는다. 이 일을 잘 해낼 때 그 반대급부로 취미, 휴식을 포함한 개인 삶의 영역에 시간과 자원을 쏟을 여유가 생긴다. 마음 같아선 일상의 일을 벗어나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지만 삶이 어디 그런가. 만일 해야만 하는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찢찢 맨다면 또 해야만 하는 일에서 마땅히 얻어야 함직한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개인 삶의 여유는 멀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개인 삶의 여유 시간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라도 해야만 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해내야 한다. 환경은 이상적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들을 하루 시간에 배치하고, 실행한 일을 기록하고, 계획과 실행의 간극을 분석하여 내일의 계획과 실행에 다시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조금씩 자라며 성취의 기쁨을 누리야 한다. 이렇게 조금씩 나의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갖게 되면서 워라밸의 삶은 더욱 빛날 것이다.

개인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자

휴식이란 그저 긴장을 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이거나 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휴식은 오롯이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되는 느낌으로 채워진 시간을 의미하여 차분하게 나를 되돌아보며 영혼육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 그러므로 일상 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개인 예배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호소하며 그를 만나야 한다. 정글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지도와 나침반을 갖고 계신 분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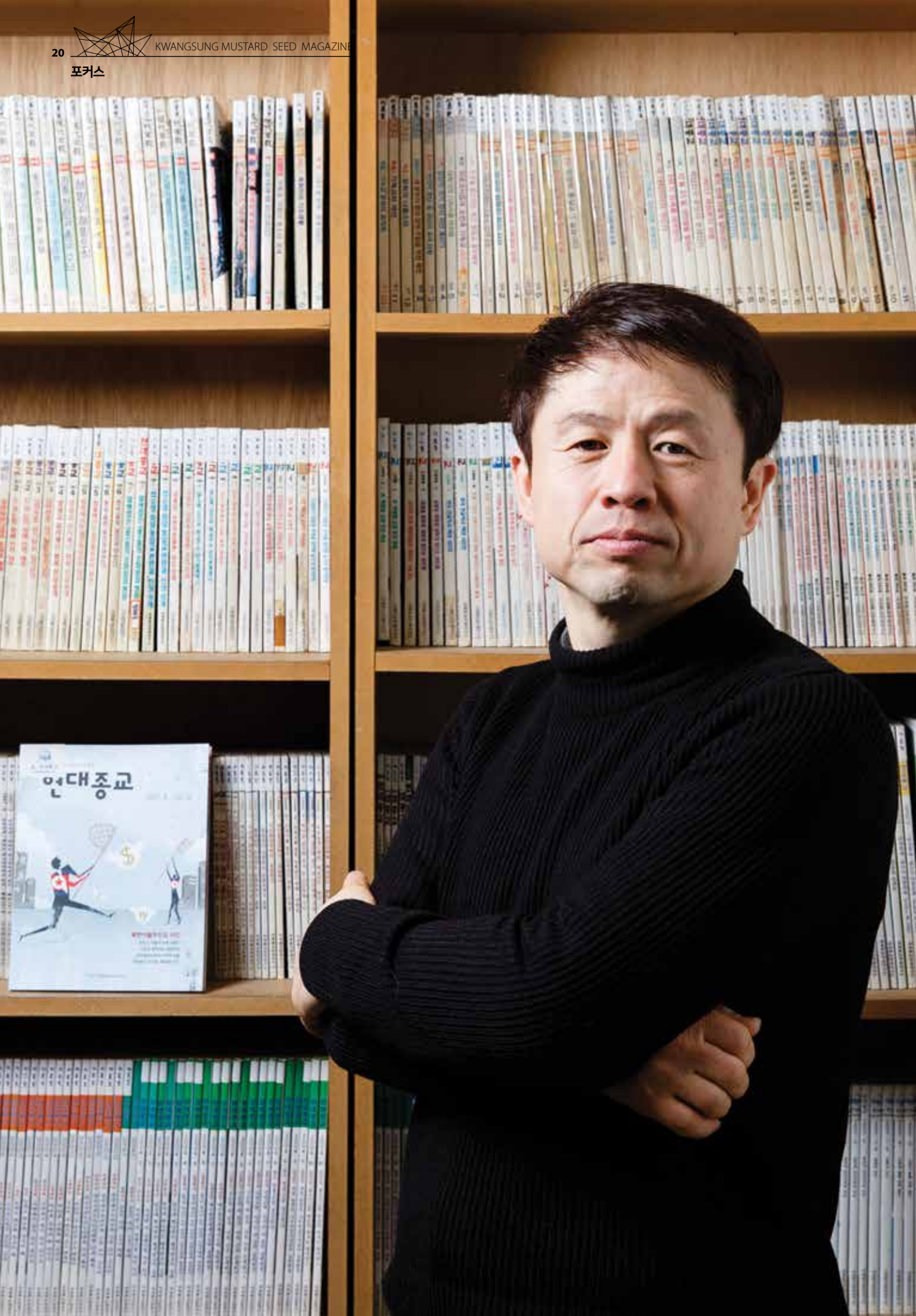
도를 매일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럴 때 다시 회복된 충만한 에너지로 일의 영역에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일과 개인 삶이 선순환을 이루는 일에 영성 훈련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워라밸로 미래를 준비하자

워라밸의 목적은 단순히 실버 세대의 일에 편중된 삶에 대한 반작용 때문도 아니고, 그저 휴식이나 취미 활동,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확보하자는 뜻도 아니다. 워라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만한 사람으로 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개인 삶의 영역에서도 성실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한다. 미래를 위한 준비의 핵심은 학습이고, 학습의 두 기둥은 독서와 글쓰기이다. 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좋은 책을 신중히 읽고, 책의 내용으로 묵상 글쓰기를 해서 학습한 내용을 차곡차곡 쌓아 가면 좋다. 묵상 독서와 묵상 글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신간 『어른의 글쓰기』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오히려 라이프를 즐길 심적,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휴식도 제대로 취할 수 있고, 취미 활동도 현재 일과 연계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다. 또 개인 삶의 시간에 영성 훈련이 잘 이뤄지면 이를 통해 영육의 균형을 유지하고 이는 일의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개인 시간에는 반드시 더 나은 나를 위한 학습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일과 생활, 신앙에 섰한 선순환을 이뤄가야 한다. 진정한 워라밸은 그렇게 일과 삶의 건강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성실히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축적해 나가는 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기독인은 이미 충분히 워라밸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포커스



현시대에 나타나는 이단과 그 대처 방안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며,
바로 가르치기

글 · 탁지원(월간 현대종교 대표, 서울신학대학원 및 코스타 강사)

◇◇◇◇☆◇

이단 문제는 믿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지만 나와 우리, 또는 교회와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디 이해관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의 준행함으로 현명한 경계와 대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진짜 같은 이단, 가짜 같은 기독교

최근 이단들은 사회봉사를 비롯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회는 교회가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 연합기관과 교단의 분열 속에 점차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걷고 있다. 가짜는 진짜같이 살며, 진짜는 가짜같이 사는 이 마지막 때에 아직 늦지 않은 마음으로 더욱 섬김과 나눔, 그리고 건강한 삶의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지피지기 백전불퇴'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단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의 문제에도 관심이 모아졌으면 한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가 근본적인 이유이겠지만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한국 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부재, '끼리끼리'의 문화, 체계적이지 못한 성경 공부와 이단 교육의 부재 등이 아닌가 싶다.

겉만 봐서는 이단인지 판단 어려워

필자가 몸담고 있는 <현대종교>에는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 많게는 매달 천여 통 가까이 되는 상담(제보 포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몇 년 전 상담이 이루어진 이단 단체를 정리해 보니 예상대로 상담이 가장 많았던 곳은 신천지였고, 그다음이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등 총 열두 개 단체였다.

이들 대부분이 기성 교회의 성도들 내지는 비 그리스도인에게도 접근하고 있는데 종교적으로, 때로는 사회적으로도 여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단·사이비 종교의 전략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자신들의 정체(이름)를 교묘히 숨기며 포교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요즘은 그 전략들이 진화해서 위장 교회처럼 그들 정체를 도통 알 길이 없는 경우도 많다. 만일 검증되지 않은 곳이나 사람들이 종교 문제로 접근해 올 때는 정확하게 교단 명(○○교단 ○○측까지)과 교회 명, 대표자 등의 배경을 확인해 봐야 한다. 또한 그들의 주보, 전단지, 웹사이트 등을 살펴본 이후에 관계해야 한다.

최근 여전히 심각한 이단은 역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구원파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대부분 가가호호 방문과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선호하기에 '설문 조사를 하자거나 '동영상을 보자'는 식으로 접근할 때 관계 자체를 거절해야 한다. 설사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천지는 워낙 독특한 포교 방식으로 미혹하기에 수시로 교회에서 포교 방법을 체크하여 성도들에게 주지 시켜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가까운 누군가라 할지라도 검증되지 않은 신앙적 교제, 성경 공부 등은 절대로 안 된다. 부디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 앞에 때로는 무대응도 나쁘지 않은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

청년들에게 드리워지는 이단의 그림자

청년들이 속한 어느 곳도 이단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곳까지 미끼삼아 포교하는 이단들이 그들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 청년들의 열심과 열정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그중 압권은 대학가이다. 아예 대학을 만드는 수준에다가 JMS를 필두로 신천지, 세칭 구원파(특히 박옥수파, MF) 등이 문화, 자원봉사 동아리, 심지어 선교 단체 등으로 둔갑하여 활동하고 있다. 때로는 총 동아리 연합회 등 학교의 주요한 단체를 장악하여 포교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앞의 'MF'라는 단체는 대학마다 포진하여 값싸게 해외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해외 봉사단의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도 외는 아니다. 중·고생 및 대학생 영어말하기 대회 등을 통해 포교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단들은 때로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대 안에서도 공식적인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다, 확산범의 수준으로 신학생들 하나 미혹하는 것을 일당백이라 여기며, 심지어 기성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군대 안의 이단 문제다. 군대는 복무 연수가 예전 대비해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폐쇄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니 이단에 속한 청년들은 군대를 황금어장이라 믿고 있으며, 그들만의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입대하고 있는 것이라. 이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병들은 선임병이 조금만 잘해 주어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된다. 이단들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포교 방법이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군부대 내 스마트폰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단들의 사병 관리가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순결 및 성교육 단계로 위장하여 자신들의 교리를 은밀히 전하는 통일교의 프로그램이 이미 20여 년 전부터 많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예 이단에 속한 청년들을 사범 대학에 진학시켜 교사로 만든 후 합법적 공간 안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교사들과 친구들이 자신이 속한 곳을 숨기고 친분 관계로 포교하는 경우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주위 사람들을 함부로 의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종교(교회)의 배경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단들은 늘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반드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고3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예비 청년의 때에 이단에 가장 많이 빠지고 있다. 따라서 수능 이후 남은 시간을 통해 각 교회마다 이단 교육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학창시절 내내 죽을 만큼 공부하여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 시기에 이단으로 인해 가족들이 눈물 흘리며 아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한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어쨌면 이 같은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에 무조건 공감해 주시기를 바란다. 대학의 동아리는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곳은 금물이며, 학교 앞에서 설문 조사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배경이 확인되지 않았을 시에는 함부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시켜 주시기를 바란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명칭과 더불어 핵심 교리를 몇 가지만이라도 파악하고, 날마다 바뀌는 전략들을 어느 정도 숙지해야 함이 필요하다. 또 교주를 신격화, 우상화한다든지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다며 직통 계시 등을 주장하고, 성경의 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때, 정통 교회를 강도 있게 비난하며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곤 이야기할 때는 우선은 이단성이 있다는 의심을 갖고 섬기는 교회의 교역자나 전문가들에게 문의·상담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나 기도원, 집회 등이 있거나 신앙 좋은 선교사들이나 교역자들 만나게 해 준다고 하더라도 섬기는 교회나 교역자들이 모르거나 검증되지 않은 곳이라면 절대로 관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대학교 동아리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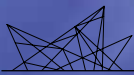
논술시험이나 면접을 보러 온 수험생들에게 동아리를 홍보하며 연락처를 받아냅니다. CBA, NYF와 같은 이단 동아리도 있으나, 대부분 위장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합니다.

5 공연 관람 초대

음악회 및 뮤지컬 공연에 초대해 친분을 쌓으면서 수험생 정보를 파악합니다.

6 심리상담

에니어그램, 도형상담, MBTI를 이용한 심리상담, 알일 찾집, 바자회, 찬양 집회 등을 열어 수험생들을 포교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수 40주년 기념 콘서트 다리가 되어

글 · 전용대 목사(복음성가 가수)



ㄹ 40주년 기념 콘서트 포스터

40주년 콘서트는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내전 국가와 제대로 된 목발이나 휠체어를 가질 수 없는 가난한 나라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불편함과 이픔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도 품질이 좋지 않은 목발을 사용하다가 부러져서 큰 위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0주년 콘서트 타이틀을 '다리가 되어'로 정했습니다.



CTS 기독교 방송국 주최로 연 40주년 기념 콘서트. 이날 수익금은 가난한 나라의 장애인들에게 목발과 휠체어를 보내는 데 사용되었다



♣ 장애인 선교회 돕기 콘서트



♣ 일본에서 열렸던 세계 가스펠 축제에 한국 대표로 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복음사가 가수가 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CTS 기독교 방송국으로부터 40주년 콘서트를 제의 받고 망설였습니다. 사실 1986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대형 콘서트를 열었지만 집회 일정에 쫓겨 살다 보니 콘서트를 가지지 못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저의 찬양을 듣고 싶다며 “목사님! 콘서트 언제 해요?”라고 물을 때 마다 “곧 할 겁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18년이 흘렀습니다.

콘서트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CTS로부터 콘서트 제의가 온 것입니다. 또 옛 동역자인 후배 목사님이 총 책임을 맡아서 준비하겠다는 설득에 ‘40주년 콘서트’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후배 목사님의 입원으로 콘서트 준비는 오로지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콘서트 경험에 없는 것도 아닌데 오랜만에 콘서트를 준비하려니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어수선했지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곧 마음을 다잡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자립 교회 돕기, 청소년 돕기, 장애인 시설 돕기, 홀 사모 돕기, 장애인 휠체어 돕기’ 등의 타이틀로 콘서트를 해 왔습니다.

40주년 콘서트는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내전 국가와 제대로 된 목발이나 휠체어를 가질 수 없는 가난한 나라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기에 그들의 불편함과 이픔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도 품질이 좋지 않은 목발을 사용하다가 부러져서 큰 위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0주년 콘서트 타이틀을 ‘다리가 되어’로 정했습니다. 차근차근 콘서트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에 무료 콘서트로 진행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인도하였고 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로 네가 지금까지 왔으니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냥 초대하여라.”

“주님 그럼 가난한 나라의 장애인들에게 목발과 휠체어는 어떻게 보내 줘니까?”

계속 반문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목발 한 개면 어떻고, 휠체어가 한 대면 어떠니? 이것은 출발이고, 앞으로 계속 하면 되는 것이잖니?”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연습 첫날 40년 전에 발표했던 찬양 한 소절을 부르는데 순식간에 40년의 사진이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저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콘서트 날짜가 임박해 오자 콘서트 제작비와 후원금에 대한 염려가 생겼고, 또 사람들이 콘서트에 많이 안 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일기도 했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시작한 콘서트.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중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콘서트 날입니다. 울산, 광주, 전북, 충청도 등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콘서트를 찾았습니다. 젊은 청년과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2층까지 자리가 꽉 차 통로에 앉기도 하고 선 채로 콘서트를 관람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콘서트를 가지면서 어르신 세대가 갈급해 하는 찬양 콘서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콘서트에 모인 사람들과 매년 콘서트를 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꼭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찬양은 생명을 살리고, 힘을 얻게 하고, 위로를 주고,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가득한 세상을 위해 또다시 힘내어 출발합니다. 월급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에 말 그대로 주님이 주신 만나로 살아가야 하는 버거운 찬양 사역의 길. 그래서 그동안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신 귀한 분들이 한없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찬양 사역자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하시는 ‘다리가 되어’ 선한 뜻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글 · 최형만 전도사



2019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다.
 이 상황을 이겨낸 힘은 바로 '버틴 힘'이었다.
 고용 불안과 경제 회복의 난제는 정치로도 풀 수 없었다.
 이념으로 인한 갈등은 한몸을 찢는 아픔을 동반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허탈감은 하늘을 찔렀다.
 정치는 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하는데 말이다.

현재를 즐기려는 옴로족에 이어
 2020년, 새로운 족속이 탄생할 예정이다.
 그것은 바로 '파이어 족'이다.
 파이어(fire)족은 '극단적으로 소비를 아끼는 족'이다.
 회사 생활을 시작한 20대부터 극단적인 절약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40대에 초반 조기 은퇴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하는가?
 돈 때문에 억지로 회사를 다닐 필요가 없고
 은퇴 후의 삶이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안간힘'을 쓰겠다는 것이다.

버티는 힘, 안간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힘은 바로
 세상을 이길 힘
 바로 십자가 사랑의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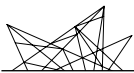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은혜는 영원하다.
 그 영원의 지속성이 바로 영생이다.
 그 영생의 기쁨은 옴로 족도, 파이어 족도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가족 공동체에 답이 있다.
 노후를 보장받는다고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이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을 준다.

잠시 잠깐의 삶의 계획도 이렇게 치밀한데
 영원을 위한 삶의 계획은 어쩔 그리 소홀한지 말이다.

2020년은 부디 진정한 종교 개혁이 벌어지는 현장이 되길 바란다.
 바로 내가 '날마다 개혁'하는 것이다.
 성령의 조명함으로 내 삶이 성화되는 것이다.
 은혜를 받은 이는 반드시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는 '복음의 힘'으로 어려움과 난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개인의 구원의 소망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소망에도 눈길을 주길 바란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할 힘은 바로 '기도의 힘'이다.



전북 김제 금산교회

주인과 머슴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세운 교회

글 · 김용기 / 사진 · 금산교회 제공

사랑채를 내 준 조덕삼

평양 대부흥운동이 전국을 휩쓸던 1905년 벽안의 선교사 테이트가 전북 김제 금산리의 마방(馬房)에 찾아들었다. 그는 지역의 지주였던 조덕삼의 마방에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묵었다. 신기한 듯 서양 선교사를 살피던 조덕삼은 “살기 좋은 당신네 나라를 떠나 왜 이리 가난한 조선 땅에서 고생하십니까?”라고 물었다. 테이트 선교사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라고 답했다.

선교사의 열정과 용기에 감동을 받은 조덕삼은 자기 집 사랑채를 내주며 예배를 드리도록 했고, 이것이 금산교회를 개척하는 시작이 됐다. 미국 남장로 교에서 파송한 루이스 테이트(Laws Boyd Tate, 한국명 최의덕) 선교사의 전도로 시작된 금산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된 조덕삼의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큰 자’ 가르침 실천

금산교회는 1908년 전통 한옥으로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부흥기를 맞았다. 조덕삼(趙德三, 1867~1919)과 이자익(李自益, 1879~1958) 등 초기 교인들은 지역 전도에 앞장서 세례 교인만 25명으로 늘어 공동 의회를 구성했다.

교회가 커지며 신앙이 좋은 두 사람 중 한 분을 장로로 선정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당시로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의 격차가 있었다. 조덕삼은 마방의 주인이었고, 이자익은 그 마방에서 일하는 머슴(종)이었다. 여섯 살에 부모를 여의고 고향을 떠나와 불우했던 그였다. 하지만 애커머로 배운 천자문을 줄줄 외울 정도로 영특해 조덕삼의 눈에 들어 마부로 일하고 있었다.

마침내 공동 의회가 열렸고 결과는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되었다. 조덕삼은 결과에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진 본을 보였다. 조덕삼은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런 분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피택 장로님을 받들어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 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며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는 마부인 이자익을 교회에서는 장로로 깎듯이 섬기며 금산교회를 이끌어갔다.

조덕삼은 그로부터 2년 후 만장일치로 장로로 피택됐다. 두 사람이 장로로 교회를 섬기던 중에 금산교회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장로는 아무런 학교를 다닌 경험도 없었지만 조덕삼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평양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더구나 조덕삼은 이 장로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5년 동안의 모든 비용을 기쁘게 담당하기로 했다. 신학교를 졸업한 이자익은 목사 안수를 받았고, 금산교회로 돌아와 담임목사가 되었다.

100년 넘는 금산교회 예배당 문화재로 보존

이 목사와 조덕삼은 금산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로 교회를 섬겼다. 이 목사는 후일 한국 교회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금산교회를 비롯해 원평교회를 섬겼으며, 경상도와 충청 지역에서 목회하며 교회를 개척했다. 한국 교회의 초기 성장기인 1950년대까지 세 번이나 조선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을 지내는 기록을 남겼다.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섬김의 일화는 한국 기독교 태동기에 선한 목자의 본을 보인 사례로 기독교 역사에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이 두 사람이 섬기던 금산교회의 예배당은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다.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136호로 지정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교회의 모습도 그 당시의 예배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어 역사적 건축물로 가치가 높다. ‘ㄱ’자 형태의 전통 한옥으로 내부에는 소나무 서까래가 흰하게 드러나 있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나무로 만든 강대상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만들어진 공간에는 남녀가 따로 앉아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그려진다. 남자와 여자 성도들이 들고나는 문도 따로 있어 당시의 예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김종원 금산교회 위임목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큰 자, 으뜸된 자라 하셨는데 그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한 조덕삼 장로는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사셨던 분”이라며 “아름다운 교회의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옮겨놓는 선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1. 1908년 지어진 금산교회 예배당은 ‘ㄱ’자 형태의 한옥으로 남녀가 구별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다
2. 서까래의 모습이 흰게 드러난 예배당의 중심부에 강대상이 있다
3. 금산교회 기념관에는 초창기 남녀가 따로 앉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모형을 비롯해 역사를 간직한 기념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4. 금산교회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는 안내판

오네시모

Onesimus

글 · 김은숙



⌘ 빌레몬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우리 교회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겨울 성경대학 중 '바이블 하이킹(신약통독)' 시간에, 성경 속 '오네시모'라는 중요한 인물을 알게 되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은 모두 5개인데 그중 마지막 서신이 빌레몬서이다.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구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빌레몬서의 요지이자 본론은 죄인이었던 노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중재와 호소이다.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할 정도의 믿음 있는 재력가였으며 또한 성도들에게는 항상 후덕한 인심과 사랑을

베푸는, 골로새 지역에서 실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 '사랑받는 나의 동역자'라고 일컬을 만큼 신뢰가 두터운 인물이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다. 그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이었으나 그 뜻과는 다르게 그는 주인 빌레몬에게 많은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도주한 '무익한 자'가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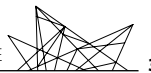
빌레몬서는 1장 밖에 없는 아주 짧은 서신이다. 10절에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라고 한 것은 옥에 있는 동안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다. 바울은 빌레몬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또 믿음의 스승이었으나 명령하듯 말하지 않고 아주 간곡히 정중하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12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나 바울을 대하듯 그를 맞아 줄 것이며, 그가 그대에게 잘못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내가 대신 갚아 줄 것이라고, 이를테면 신원 보증을 해 주고 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바울의 서신 내용으로 보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에 많은 손해를 끼치고 도주한 노예로 보인다. 그 당시 로마법에 도망친 노예의 처벌은 매우 혹독했고, 주인은 자신의 노예를 마음대로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잡혀 온 노예는 심한 고문 끝에 사형 당하는 것이 예사였다. 바울은 위기에 처한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간곡한 청원을 하는 것이다. 그만큼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였던 것이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복음 사역자로 헌신하게 한 바울의 그리스도 사상이 이미 2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은 곧 노예 해방의 기폭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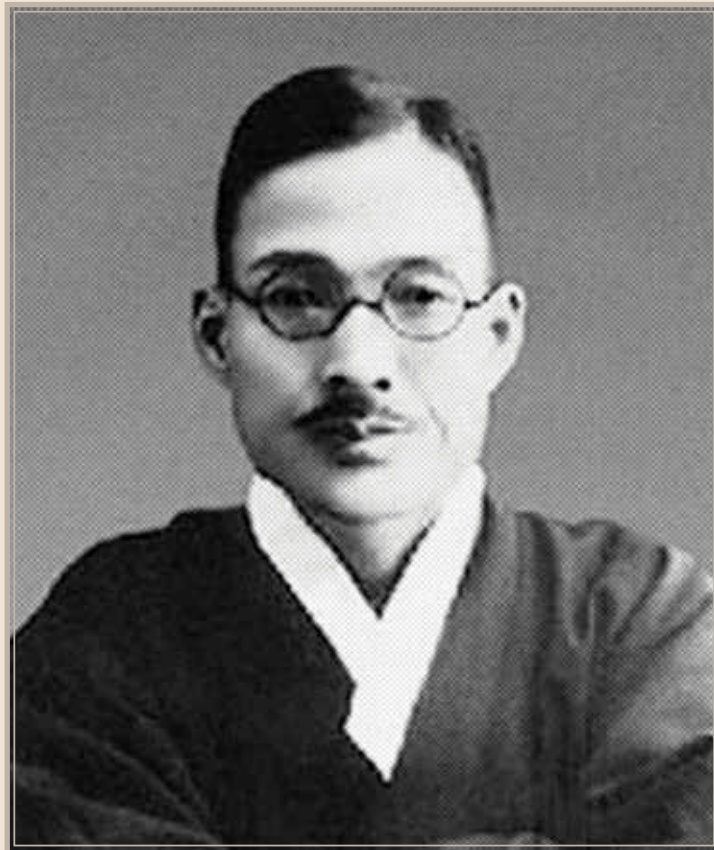
1787년 노예 폐지 법안을 제출한 영국의 윌리엄 월버포스와, 미국 남북 전쟁에 승리하여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 대통령은 이 '빌레몬서'를 읽고 영향을 받은 것이라 전해진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 변화된 것은 실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그로부터 50년 후, 오네시모는 에베소교회의 신실한 감독관이 되었다.

빌레몬서는 실로 용서를 가르친 서신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도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네시모처럼 이웃에게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유익한 자로 거듭나기를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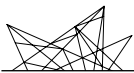


주님의 기독교를 철저히 믿겠다

주기철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다”



주님의 기독교를 철저히 믿겠다

주기철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라”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피하였다가
이다음에 내가 무슨 댓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 주기철 목사의 마지막 설교 ‘고난의 명상’ -

» 평양산정현교회 제직원 일동(1937). 아래 좌측부터 조만식 장로, 김동원 장로, 박정의 장로, 주기철 목사, 유계준 장로, 김봉순 장로, 오윤선 장로, 김천두 장로



글 · 오성한 목사(웅천교회)



▲ 웅천교회 부흥회

제1부 1897-1910(1-13세) 복음을 받다

주기철 목사는 진해에 있는 웅천교회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웅천교회는 1900년도에 세워진 역사 깊은 교회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웅천교회보다 3년 빠른 1897년 11월 25일, 아버지 주현성과 어머니 조재선의 4남 3녀 가운데 4남으로 태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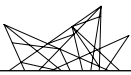
13세였던 1910년, 만형 주기원을 따라 성탄절에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길선주, 김익두, 손양원 목사 등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흐르는 분들과 함께 한국 교회의 부흥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1. 주기철 목사와 오정모 사모



2. 주기철 목사와 막내 주광조 장로 어렸을 때



2020 특별기획 | 한반도에 핀 순교의 꽃①

제2부 1910-1916(13-20세) 개명

앞서 말했듯이 주기철 목사가 처음으로 웅천교회에 출석한 것은 13세 되던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지 2년경이 되었을 때 스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본래 이름은 기복이었는데 기철로 바꾼 것입니다. 불교와 유교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님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그는 다짐했습니다. 주님을 철저히 믿겠다고 말합니다. 개명한 이름인 '주기철'의 의미는 '주님의 기독교를 철저히 믿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그 이름을 평생 사용했고, 사랑했습니다. 또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1913년 정주 오산학교에 입학해 1916년 3월에 오산학교 7회 졸업생으로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 상과대학(現 연세대)에 입학합니다. 오산학교에서 조만식 선생을 만나 배우게 되었고, 상과에 입학한 것은 사업가였던 이승훈 교장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3부 1926-1936(30-40세) 사역의 중심

주기철 목사는 김익두 목사의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졸업하여 목사가 된 그는 1926년 30세의 젊은 나이에 부산초량교회 담임목사가 되었고, 35세의 나이로 1931년 마산문창교회 담임목사가 됩니다.

그의 사역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는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 삼일교회서의 사역 중 놀라운 사역은 일제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삼일유치원을 설립해 1931년 3월에 제1회 유치원생 10명을 배출한 것입니다.

동년 7월에 마산문창교회로 부임한 그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쏟았습니다. 당시 교회당이 멀고 교통편이 좋지 못해 교회당까지 오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 마산 시내 열 군데를 정하여 가정 주일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참으로 획기적일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이렇게 어린이에게 예수 복음을 심어 일제 치하의 조국을 건져 세계 속에 우뚝 솟게 하리라는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1. 평양신학교

2. 주기철 목사 웅천교회 시무 - 경남노회
종교교육지도자 하기 수양회(1930)





출옥 후 주기철 목사 사택에 모인 출옥 교인들(1945. 8. 17)

제4부 1936-1944(40-48세) 순교

주기철 목사는 일본의 천황을 섬기고 절하는 목사를 향해 “당신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외쳤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대가는 무서웠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옥고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문, 불고문, 주리틀기, 잠 안 재우기, 밥 굶기기, 거꾸로 매달기, 열 손톱 밑에 이쑤시개 꽂기 등 말할 수 없는 고문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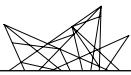
주기철 목사는 다섯 차례 옥고를 치렀습니다. 27일, 1개월, 6개월, 9개월간 각각 수감 생활을 했고, 다섯 번째 옥고 약 4년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1940년 6월에 구속된 그는 1944년 4월 21일 해방을 1년여 앞두고 순교했습니다.

3차 구속되었다가 6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풀려나면서 있었던 이야기는 온 천하를 울게 했습니다. 그는 3일 만이라도 신사참배 거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면 선처하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풀려난 지 3일 되던 1939년 2월 주일에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일본 순사마저 울렸다고 합니다.

설교 후 젊은 청년들이 “목사님, 목사님께서서는 이 설교 때문에 또 잡혀가실 텐데 설교 원고를 저희에게 주십시오.”라는 요청에 “안 된다. 저놈들이나의 설교 원고를 달라고 할 텐데 너희들이 다치면 안 돼. 어서 베껴 적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목사님의 원고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문을 소개합니다.

1. 신사참배 거부 운동의 주역이 된 주기철 목사와 산정현교회 제직들
2. 주기철 목사 장례식
3. 평양 돌박산 기독교 공원 묘지의 주기철 목사와 오정모 집사 묘소





주기철 목사의 설교, 오종목의 나의 기원

나는 저들의 손에 몇 번째 체포되어 이번에는 오랜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다가 이 산정현 강단에 다시 서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나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시던 교우 여러분 앞에서 다시 설교하러 하니 감개무량합니다.

1.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2.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3.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나는 80년 넘은 어머니가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1)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2)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연모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3) 세상에 제 자식을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4)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 떼, 나의 사랑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 내 양 떼를 뒤에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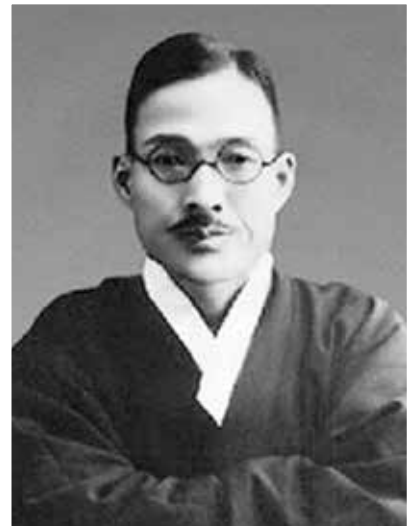
4.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에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네게서 떠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 백 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5.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1939년 2월 평양산정현교회에서 설교



⌘ 평양산정현교회 신축예배당(1938). 우측에 있는 기와 건물 이 1918년 세운 예배당

김민수 목사의 들풀편지 겨울

동백, 예수님을 닮은 동백

글 / 사진 · 김민수 목사(한남교회)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거룩한 행위다.
낙화한 자리엔 열매가 맺히니
죽음 없는 부활의 열매만 탐하는 이들은
동백의 낙화를 보며 배울 일이다.

꽃은 시들지 않아도 떨어질 수 있음을,
남아 있는 꽃들은 떨어진 꽃 덕분에 존재함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꽃,
동백.
떨어진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결연한 의지를 담아 웃고 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는 것은 본능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영생'은 '불멸'이 아니라 '생명'이므로
삶의 신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떨어진 꽃 외롭지 말라고
연대하여 낙화한 꽃들이여!
홀로 견뎌야 하는 아픔은 절망으로 향하게 하기도 하지만
연대하는 그대가 있으니
희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에 그대에게 감사!

아직 남아있는 꽃, 떨어진 꽃,
모두 아름다운 동백,
그 꽃은,

마치 꽃다운 서른세 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1. 좋은 학교란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
꽃을 피워 내는 학교가 아닐까
2.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한가득 그려
넣는 유쾌한 수업 시간
3. 역사 교실 수강 학생들

교회 밖 아이들 위한 열린 교육 사역 학원 사역위원회 좋은학교만들기팀

취재 · 이학명

● 지난해 11월 초 광성드림학교에서는 마을형 청소년 케어 마지막 수업과 졸업식이 진행됐다. 마을형 청소년 케어는 거룩한빛광성교회가 학교와 행정기관 사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초등~중등 아이들에게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교회의 열린 배움터가 교회 안 사람들에게 배움을 주는 것이라면 마을형 청소년 케어는 교회 밖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한다. 좋은학교만들기 운동을 주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교육위원회 좋은학교만들기 사역팀의 정호석 장로와 김동영 집사를 만나 좋은학교만들기의 다양한 활동을 들었다.

교회 분립의 새로운 시도

“분립개척위원회에서 정호석 장로와 저, 그리고 다른 몇 분이 교회 분립하는 방법을 찾다가 새로 교회를 만들지 말고 학교의 강당을 이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것이 지금의 좋은학교만들기팀이 만들어진 계기죠.”

● 좋은학교만들기팀이 만들어진 것은 3년 전. 본격적으로 교회 밖 학교 지원을 한 것은 2년 전 부터다. 당시 학교 강당을 빌려 교회를 분립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학교 강당을 빌리는 것이 쉽지 않았고, 담당자가 좋은 취지를 이해하고 허락하더라도 선생님이 바뀌면 프로그램 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분립의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에 사단법인 더불어배움과 조인이 됐어요. 더불어배움은 학교와 구청, 교회와 연





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이지요.”

이미 서울 은평구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던 더불어배움이 고양 지역에서 또 다른 사역을 해 보자는 제안을 했다. 교회 아이들만 섬기는 사역에서 은평구가 했던 것처럼 교회와 학교가 어울리는 사역을 해 보자는 것. 마을형 청소년 케어 프로그램 이전에 학교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고양시 일대 교장 선생님을 모아 제주도에서 좋은 학교만 들기 취지와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교장 선생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13개 학교가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방과 후 수업이 있었지만 컬러 테라피, 마임, 합창 등 아이들이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고양 지역의 7개 학교에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심리에 대해 파악하고 마음을 풀어 주기도 하고, 함께 배우는 가운데 음악회를 열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 등을 알려 주기도 한다. 수업은 학교 측 교장 선생님과 협의해 방과 후 수업이 아닌 정규 수업 시간 안에 들어갔다. 이 수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은 학생은 5천 명이 넘었다. 학교 지원 프로그램은 학교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부모님들도 변하는 교회에 대한 인식

마을형 청소년 케어 프로그램은 ‘그림책이랑 놀자’, ‘창의 역사 교실’, ‘예술아 놀자’, ‘마을에서 내 꿈 찾기’ 이렇게 4개 클래스가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데, 아이들 대부분이 만족도가 높다. 수업을 막 끝낸 초등 1학년 유지민 양은 “실팽이, 책 만들기 수업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다”며 첫 수업 빠진 것을 아쉬워했다. 11월에는 모집 정원이 110명이었고, 95명 아이들이 수업을 받았다.

김동영 집사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교육관에서 진행한다는 자체가 아이들이 교회를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자원봉사자들은 교회에서 공개 모집해 모인 사람들인데, 그들의 역할도 상당하다. 정호석 장로는 “학생 전도를 하는 것이 힘드니까 어떻게든 연결 고리를 만들고 싶었다”며 “자원봉사자들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진다”고 말했다.

마을형 청소년 케어는 목적에 맞게 교회가 아닌 학교를 중심으로 홍보한다. 고양 시내 학교들에 포스터를 붙이기도 하고, SNS 모집도 한다. 10월 초부터 6주간 진행된 수업은 지난해 11월에 끝이 났고, 다음 회차는 올해 5월에 시작해 6주간 진행된다.

모집이 진행되면 보통 교회 다니는 학생과 안 다니는 학생이 반반 정도이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교육에 교회 안과 밖의 조화를 이루자는 양 날개 철학이 있잖아요. 교회 안 사람들을 잘 케어 해야겠지만, 교회 밖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교회와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거룩한빛광성교회 교육위원회 좋은학교만들기 사역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글 · 구창모 안수집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롭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저는 369장 찬송을 어릴 적 초등학교 때
어머님으로부터 처음 배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369장의 멜로디와 노랫말이
마음속에 큰 은혜와 감동으로 울렸습니다.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를 때면 그 감동과 은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찬송의 제목에서부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맡아 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가사를 보면 우리의 죄와 모든 문제를 주님께 고하고 의지하라는 권유가 있
습니다. 그리고 찬송 마지막 부분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품에 안
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으라는 것으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청년광장

- 꿈의 뜰을 걷다

청년 4인 토론

청년의 때,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2

-진로(進路) : 앞으로 나아갈 길-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칭해지는 세대,
올바른 길이 미리 정해진 것 같은 교육을 받은 세대,
직업이 나의 전부가 아닌, 나를 구성하는 일부가 된 세대,
지금의 청년들은 진로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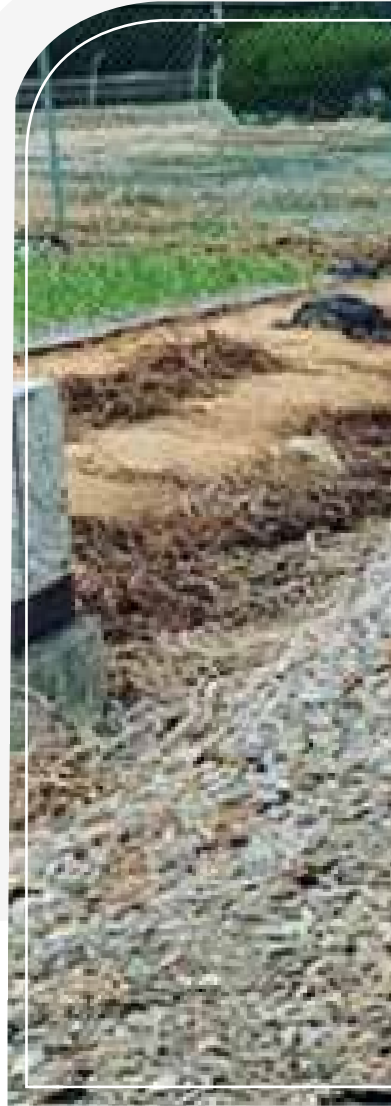
취재 · 유동규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

유하 : 저는 배운 것이 실제 삶에 통용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요. 예를 들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 당장에 어떻게 직원의 임금을 관리하는가를 배우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는 임금을 줄 직원이 없어요. 좋은 신입 사원학과는 없는가 싶어요(웃음).

사회가 너무 전문화되었나 싶기도 하고요. 예전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타자를 빠르게 쳤다면, 이제는 '관련 자격증 다수 보유, 관련 학과 석박사' 이런 느낌일까요. 이렇게 전문화되었기에, 열아홉 살 나이에 선택해 수년을 쏟은 전공이 제 길이 아니라고 느껴 멈춰선 지금 또 다른 분야를 도전하기엔 이미 그 길을 걷던 사람들과 전문성의 차이가 심해졌어요.

찬미 : 저도 비슷해요. 미술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 당장은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파트타임으로 다양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다른 분야가 하고 싶은가?'하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미술이라는 진로로 십수 년간 투자하신 부모님과도 부딪힐 것 같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싫어하는 건? 잘할 수 있는 건? 하고 고민이 멈추지 않고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결정된 길을 가는 것 말고, 길을 결정해 나가는 법을 배웠었다면'하고 아쉽기도 하죠.





ㄹ 하나의 길이었지만 곧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철길. 정해진 길에서 걸어왔던 우리, 이제는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성 : 저는 중학교 다음 고등학교, 고등학교 다음 대학교, 대학교 다음 취업 이렇게 단계적인 목표의 달성으로 삶을 살아왔어요. 보통 단기 목표는 달성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다시 고등학교를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취업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다니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동료가 정리해고를 당하는 경험을 하고, 더욱 그렇게 느껴요. 달성하고도 또 고민해야 하고, 언제까지 할지, 얼마나 전력을 쏟아야 하는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미지의 목표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진로를.

승준 : 저는 '어차피 다 불확실하다면,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도 제 또래 친구들처럼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가 봐요. 그런데 다양한 것을 해 보려 하니, 돈과 시간에 메여야 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저를 참 많이 괴롭혔어요.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주변에서도 '늦지 않았냐', '그럴 돈, 시간은 어디에 있냐', '남들은 벌써 이렇게 벌고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좋아하는 것을 찾아도 즐길 수 없게 됐었죠.



나의 진로가 어떤 일이었으면 좋겠는가

승준 : 그 직업이, 적어도 나쁜 영향력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걸로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별거 없다'라는 실망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자면 그 일을 통해 제가 잘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회사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요리나 글 같은 창작물을 만들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잘 표현되는 일인데 나쁜 영향력이 없으려면, 결국엔 제가 나쁜 사람이면 안 되겠네요.(웃음)

지성 : 저는 직업을 생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제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일부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고 보람칠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산직과 사무직을 다 경험해 봤어요. 누구나 시간이 잘 간다고 느끼는 지점이 다르잖아요. 저는 제 예상과 다르게 생산직을 하면서 제품이 완성되었다는 것에 더 보람을 느끼고 시간이 잘 흘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일을 끝마친 시간에 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에 투자하며 사는 삶이면 좋겠어요.

찬미 : 진로에서 바라는 것이라면 눈치 보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했어도 눈치를 보



1. '청년!', 두 글자가 주는 가능성과 무게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청년은 행복합니다

2. 이리저리 복잡하게 교차된 전깃줄들의 중심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전봇대. 인생의 갈림길이지만 그 안에 빛나는 명확한 빛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사장님이 되려고 하는 지도 모르겠지만.(웃음) 최근 일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한 후에 앉아서 쉬라고 하는 게 좀 이상적이었어요. 일을 만들고, 찾으려면 더 있겠지만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이걸 하나님께도 비슷해요. 설교나 예배에서 '여러분은 기도 하는 사람으로!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일터에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끊임없이 해야 할 것 투성이고, 참아야 할 것, 기도해야 할 것 투성이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누린다거나 평안하다는 게 사실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을 느껴 보는 시간이 있는 삶을 꿈꿔 보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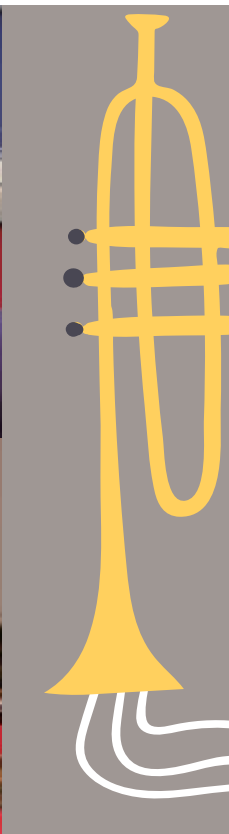
맺는 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문구지요. 그 말인 즉,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방향을 몰라 어떤 것으로도 발전하지 않는 것 같은 때에 방향 설정의 시

간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매우 답답하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막막한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도자이자 함께 걷는 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마 10:1)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의 부르신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함께 행할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교차로(Cross Road)에 있을 때,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약한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서로에게 일하실 하나님을 중보하고 기다리며, 응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모르겠던 교차로가 사실은 Cross Road(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함께 걷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때에 누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길 기도합니다.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으며

글 · 백동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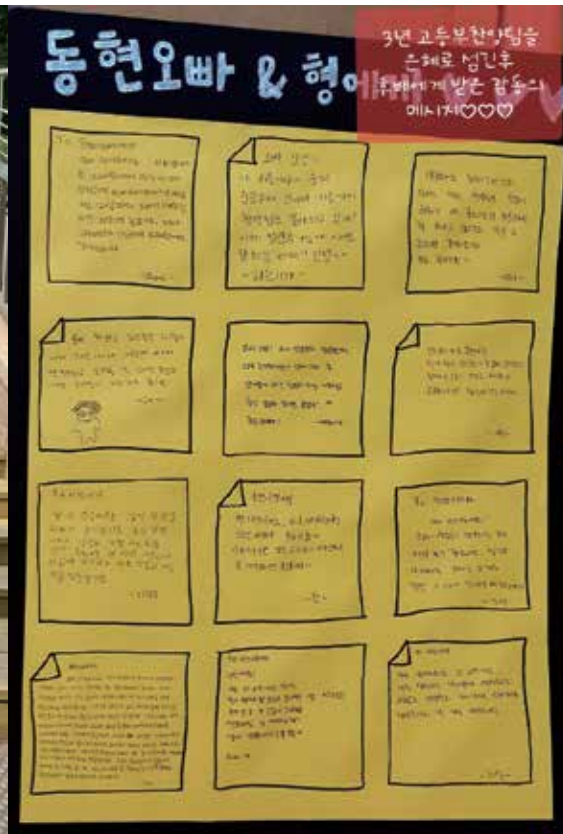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와 사랑청년부를 섬기는 스물한 살 백동현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서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때는 찬양팀 봉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좋았고, 찬양을 할 때면 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났습니다. 또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찬양팀원들과 함께 연습하던 과정도 참 소중한 좋은 기억입니다. 졸업할 때 고등부 후배들이 써 준 편지는 지금도 간직하고 되새길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청년부에서도 찬양부를 섬기기 위해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져서 실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꿈을 간직하며 찬양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사랑청년부 예배에서 피아노 반주 중
2. 광성핸드벨 연주회
3. 광성핸드벨 연주회 후 박승현 위임목사와 함께
4. 사랑오케스트라
5. 고등부 찬양팀을 섬긴 후 후배들에게 받은 감동의 메시지

현재는 사랑청년부에서 기타와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사랑청년부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시작한 광성핸드벨 활동은 언제나 제게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 줍니다. 핸드벨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님을 다양한 악기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성배움터에서 클라리넷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아름다운 클라리넷 소리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얼마 전 다니엘 기도회에서 자두 사모님의 간증에 감동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현재 저는 낮에는 월릉에 있는 사회적기업 행복나눔터에서 일하고 있고, 야간에는 서정대 사회복지행정과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과 공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 지치고 힘들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싶은 마음은 힘든 것을 이겨내게 합니다. 제 능력은 아직 제 꿈에 많이 못 미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2020년 청년부 회장으로 선출된 양한나 자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하나님이에요.
누구보다 당신을, 찌질하리만큼 짝사랑 하신답니다”

취재 · 유동규



» 2020년 청년부 회장으로서 선출된 양한나 자매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5기수 양한나라고 합니다. 자기소개는 참 어렵네요(웃음). 고등학교 1학년,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무렵 DNA에 대해 배웠어요. 생물의 다양한 정보가 적혀있는 DNA가 정말 신기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해 주는 자료니까요. 그래서 생물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것이 다를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심이 분명하니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의 요즘 목표입니다. 예정과 달리 7년이나 걸린 석·박사 기간도, 제가 좋아서 들어간 직장에서 겪은 3년간의 어려움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신실하셨고 언제나 저를 찾아오셨고 순간순간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순간순간마다 온전한 신뢰를 드리지 못함에 아쉽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의 뜻과 다르고 막막하지만 신뢰함으로 나아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3년 동안 제 개인적인 삶이 꽤 어려웠거든요. 가정도 너무 불안정했고, 힘 센 친구에게 많이 맞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이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 곳을 떠나면 문제없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죠. 그런데 웬걸요. 지역이 달라져도 절친하던 친구가 갑자기 저를 모른 척한다거나 친한 친구들이 뒤에서 저를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많이 힘들었죠. 근데 또 이 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인거예요.(웃음) 일주일에 세 번이나 예배를 드리는! 매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을 때,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저는 이렇게 혼자인데!’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부르짖음 중에 ‘아,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구나’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했죠, 하나님은 정말 맞춤형이신 것 같다고. 흠뻑

맞으면서도 '나는 옳아 저들은 틀려!'라고 외치던 저의 자의식이 꺾어지도록 만지신 것 같았거든요.

3.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참 기억에 남아요. 공동체를 섬기던 지체와 서로의 의견 차이로 크게 싸우게 된 거죠. 저는 다투더라도 금세 푸는 스타일인데 그 친구는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교역자분들이 그 지체가 공동체를 떠날까 걱정하셨는지 예배 간사로 그 친구를 세우셨어요. 예배마다 앞에 나와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친구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 사태를 묵인하는 교역자님들과 그 위치에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날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려면 믿고 싶지 않다고 외치고 다녔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성경 공부 리더 제안이 왔어요. 열심히 불평만 하던 저에게 말이죠. 당연히 안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믿은 10년이 아깝다면 3개월만 더 투자해 보라는 리더의 권유에 한번 해 보게 되었죠. 하나님은 참 맞춤형이세요. 원가를 말으면 책임감에 하게 되고, 리더가 준비를 안 해가는 건 참을 수 없어하는 저를 아시는 거죠. 매일 성경을 1시간 반씩 읽고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리라 마음먹고 읽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말씀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공동체를 가장 사랑하는 건 너도 그 지체도 아닌 나다! 왜 너에게만 내가 말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알게 하시기도 하고요. 말씀으로 회복된다는 것,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걸 그 때 경험했어요.

4. 함께 예배하고 동역하는 성도들에게...

인격적이라는 건 쉽게 말해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집중하고, 반응해 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고려하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다루어 달라는 듯한 비인격적인 관계를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집스루하실 만큼 인격적으로 일하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세요. 말씀으로, 자연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관계로, 상황으로 각기 사람에게 맞추어서요. 친구랑 둘이 만날 때 카톡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예배에서도 여러분과 하나님 둘만의 시간에 다른 사람, 다른 걱정을 들여놓지 않기를 바라요.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이제 그만 성장하면 안 될까요? 저번에 좋았는데, 충분했는데 그만 가까워지면 안 될까요?'라고 생각하게 되는 저에게도 하는 말인데요. 마치 내가 타는 비행

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일단 믿고 갈 때 해외의 신비로움이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맞춤형 사랑 고백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이라 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시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자녀로서 누리면 좋겠어요.

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렘 29:13)



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사진.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어린아이처럼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ㄹ 청년부 임원들과 2020년을 위해 함께 준비하는 양한나 자매

낙심부터 겸손까지 과정의 성실함을 일깨워주신 정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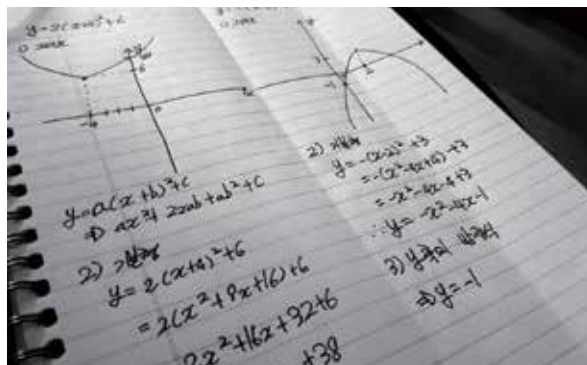
글 · 박지석(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수학 37점. 내 인생에서 가장 낮은 성적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받은 37점이었다. 중학생이 되어서 성적이 조금씩 내려가더니 어느덧 앞에서보다 뒤에서 세는 것이 더 빨랐다. 성적이 오르지 않아 어머니께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수학 공부방을 등록해 주셨다. 그 수학 공부방은 다른 수학 공부방과 비교했을 때 많이 특별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좀 이상했다. 학원 선생님의 이름을 그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저 '정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셨다. 공부방 벽면에는 '소심→노력→자신감→겸손'이라는 말을 A4 용지 여러 장에 인쇄하여 붙여 놓았다.

선생님은 엄하셨다. 때문에 많은 수강생이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공부방을 나갔다. 나도 엄한 공부방 분위기와 선생님의 성격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공부방을 그만둘까 고민했지만 이렇게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 눈물을 꼭 참고 수학 공부에 매진했다.

공부방을 다닌 지 3개월 후 기말고사를 봤다. 53점이었다. 성적은 올랐지만 목표한 점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했으니 됐다면서 이 점수에 낙담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 목표 점수에 도달할 거라고 하셨다. 그것이 공부방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선생님께 들었던 격려의 말이었다.

나의 공부 방법에도 변화가 생겼다. 필기를 하는 습관이 생겼다. 또 예전에는 수학 문제를 보기만 해도 갑갑했었는데 어느덧 아는 문제들이 하나, 둘 보이고 풀어나가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하며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점점 공부방 시스템에 적응이 되었다. 단순히 수학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삶에 임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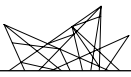
≫ 중3 이차함수 풀기. 단순히 문제 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프도 직접 그려 보며 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했다. 이는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다음 학기 중간고사에서 수학 점수가 80점대까지 올랐다. 선생님께서는 칭찬보다는 언제나 방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노력하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곧 자만에 빠졌고 다음 학기에 성적이 내려갔다. 물론 한 두 문제 더 틀린 정도였지만 나의 자세에 대하여 반성이 되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언제나 자신감 있게, 자만하지는 않게!' 이 말을 늘 가슴에 담았다. 중학교 3학년까지 원하는 성적을 유지하며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성적 올리기가 아닌 과정의 성실함을 일깨워 주신 '정 선생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오늘도 나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할 것이다. 이 또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값진 시간이었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정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붙은 필기 습관. 필기를 하면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고, 자신감과 성적 향상으로 이어졌다





동심

작가노트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푸른 하늘과 반짝반짝 빛을 내며 꿈과 희망을 주던 노란색 꽃들,
그리고 지칠 줄 몰랐던 새들의 종알거림...
꿈을 키우던 그 동심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 영원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한다원

개인전 1회, 그룹전 20회
세계평화미술대전 우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김포미술협회원

한 겨울 추위를 녹이는 정열의 화신, 동백꽃차



글/사진 · 김규리(시인, 시조명인)

효능

토혈, 육혈, 인후 통, 지혈 작용, 장풍, 하혈, 혈리, 화상 치료에 좋다. 꽃에 항암 작용이 있으며 강심 작용도 한다고 한다.

동백꽃 하면 우선은 알렉산드로 뒤마의 소설 『춘희』가 생각난다. 고급 매춘부 마르그리트와 청년 아르망의 순수한 사랑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소설. 진실한 사랑만이 사람을 고귀하게 만들고 영혼을 구한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베르디에 의해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로 개작되었다.

소설의 주인공은 동백꽃을 몸에 항상 지니고 다녀서 '춘희'라는 별명이 붙었다. 10대 후반에 어울리지 않게 우연히 『춘희』를 읽게 되었는데 동백꽃과 연관되어서 그런지 이맘때면 생각나곤 한다. 물론 한국인에게 동백꽃 하면 이미지 의 '동백 아가씨'가 우선 생각나겠지만 말이다.

특히 겨울철 눈 속에서 피는 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동백(冬柏)이라고 겨울의 으뜸이라는 의미이며, 산다화(山茶花)라고도 한다.

꽃말은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랑, 겸손한 마음'이다. 대나무, 소나무, 매화를 '세한삼우(추운 겨울의 세 친구)'라 하듯 동백꽃을 추운 겨울에도 정답게 만날 수 있는 친구에 빗대어 '세한지우'라 부르기도 한다.

동백꽃은 우선 낙화할 때 꽃잎이 화려르 날리며 떨어지는 꽃들과는 달리 꽃송이채로 떨어지는데 동백꽃이 지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한다.

동백꽃차 만들기

동백꽃차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봉오리를 채취하여 시들면 한 잎 한 잎 펴서 꽃을 만들어 뒤는 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편이 낫다. 일반인들은 그냥 동백꽃잎을 따서 깨끗하게 손질하여 건조기에 말리던지 찜기에 살짝 찌서 건조시켜 끓는 물을 부어 2~3분 정도 기다렸다 마시면 마르그리트의 정열적인 삶이 부럽지 않을 맛으로 다가 오리라.



과부 황새와
흑두루미

-새들에게 배우다-

글·김은숙(수필가, 필명 김지형)

인간이 때로는 새만도 못한 존재인 것 같다. 존속을 해치는 악한 범죄가 언론에 나올 때는 몸서리가 치지며 순리대로 살아가는 새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새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접하게 될 때, 놀라움과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1994년 겨울, 충북 음성군의 과부 황새로 알려진 우리나라 마지막 텃 황새가 죽었을 때, 과부 황새의 일생이 화제가 되었다. 이 황새 한 쌍의 등장은 6.25전쟁 후, 거의 사라져 천연기념물(199호)로 지정되었기에 나라의 좋은 징조로 여기고 주민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 3일 후, 밀렵꾼의 총에 수컷 황새가 죽고 말았다. 이후로 이 과부 황새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함께 동지를 틀었던 곳에서 무정란을 낳으며 이리저리 배회하다 농악에 오염된 먹이를 먹고 빈사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후, 서울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고 살아나 서울대공원에 수용돼 보호받다가 자연사했다. 그동안 과부 황새는 간혹 러시아 등지에서 날아든 다른 황새와도 짝을 맺지 않았고, 인공번식을 시도하는 등 여러 차례 개가(?)시키려는 노력도 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하였다고 한다.

황새의 번식은 어렵게 되었지만 과부 황새의 절개(?)만은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

오늘 아침 50대의 주부가 수십 년을 살아 온 남편을 돈 문제로 청부 살해했다는 끔찍한 뉴스를 보

았다. 이 부인은 황새보다 못한 여인이다.

일찍이 러시아의 문호 투르게네프는 그의 산문 「참새」에서, 산책 중 자신의 사냥개 앞에 떨어져 파닥이고 있는 새끼 참새를 구하려고, 어미 참새가 괴물같이 엄청나게 거대한 사냥개 앞에 사력을 다해 대항하는 모습에 놀랐다. 이 기세에 기가 눌린 사냥개는 우두커니 서 있다가 뒷걸음을 쳤다고 한다. 이 작은 참새의 모정만도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가!

기록을 갈아치운 올 폭염에 또 하나의 감동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울산 지역에서는 어미 왜가리가 새끼들에게 자신의 날개를 펼쳐 뜨거운 태양 별을 피해 그늘을 만들어 주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태양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위치를 바꾸면서 자신은 쏟아지는 띄약별 아래 하루 종일 서서 보호하다가 저녁이 되면 먹이를 구하러 나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를 벌써 열흘 이상을 계속하고 있다. 이 어미 새들의 모정은 감탄을 넘어 숭고하고 경건하기까지 하다.

흑두루미 아홉 마리가 북쪽으로 이동하다 새끼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쳐 낙오되자 어미 두루미도 남아서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모습이 강릉의 무논에서 포착되었다. 새들의 세계에서는 비행의 대열에서 낙오되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미는 새끼 곁에서 죽기를 각오한 것이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빈번히 일어난다. 대표적인 예로 원영이 사건과 고준희 양 사건을 들 수 있다. 7살 어린 원영이를 추운 겨울에 속옷만 입혀서 3개월 동안이나 차가운 목욕탕에 가둬놓고 굶기고 때리기를 계속했고, 온몸에 락스를 들이붓고 찬물을 끼얹는 모진 학대는 끝내 아들이 죽음에 이르러서야 끝이 났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5살 준희 양의 친부와 계모는 학대하다 숨진 딸을 암매장한 후, 실종 신고를 내고 살아 있는 것처럼 연극을 하는 간악한 죄를 저질렀다. 인간이 어찌 이리 잔

인하고 악할 수 있을까? 이런 인간들 앞에 인면수심이란 말도 아깝다. 동물들이 들으면 반박할 것 같다. 새들도 어미 목숨을 걸고 새끼들을 보호하는데 친부모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죄를 감추기에만 급급했는지 분노가 치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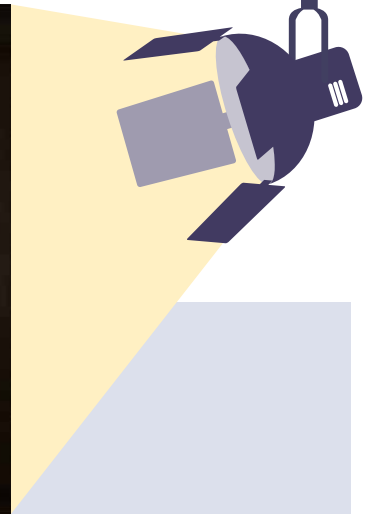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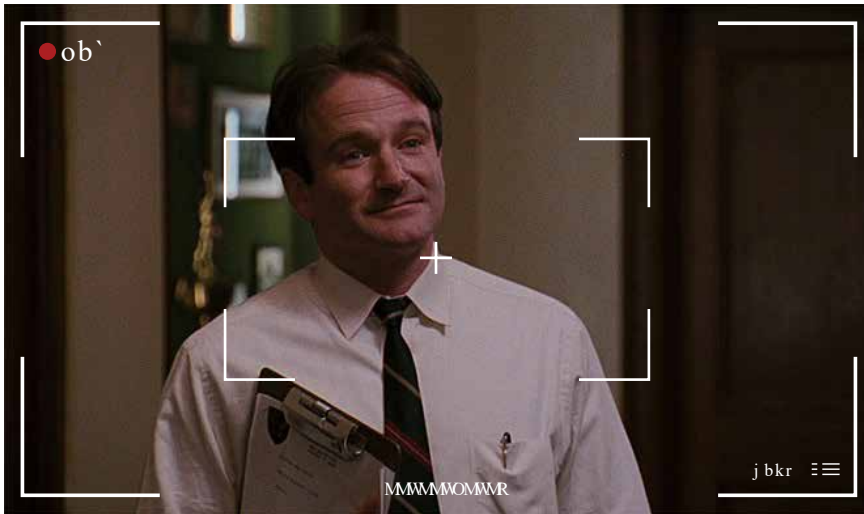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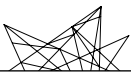
인간의 비뚤어진 이기주의와 욕심은 자식도 몰라보고 자신만이 편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것일까. 아무리 그 심리를 분석해 보려고 해도 해답이 없다.

새들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배울 점은 너무나 많다. 그들은 원칙을 어기지 않으며 술수를 모른다. 지혜는 있어도 꾀는 부리지 않는다.

철새의 비행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지혜로운지 알 수 있다. 환경이 바뀌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 그들의 철칙이다. 바뀐 환경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수만리 장천을 무리지어 나르는 모습은 장엄하기까지 하다. 목적지까지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그 장정을 그들은 어떻게 찾아갈까. 낮에는 태양을 보고 밤에는 별을 보며 방향을 잡고 서로 소리를 내며 격려를 한다고 한다. 선두에서 인솔하는 새는 힘이 떨어질 때쯤엔 서로 순서를 바꾼다. 이들에겐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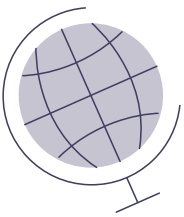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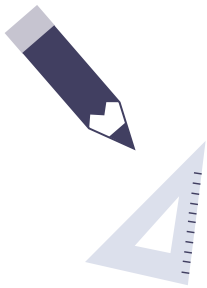
이렇듯 그들만의 세계에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새들에게서 교훈을 얻으며 인간이 짓는 많은 죄를 속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캡틴, 오 마이 캡틴! 죽은 시인의 사회

글 · 강혜미



미국의 명문인 웰튼 아카데미. 전통과 명예, 규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곳은 학생들을 아이비리그에 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곳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은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겠다는 부모의 계획 아래 계약 노동자처럼 끌려 다닌다. 우리네 입시교육이 그러하듯 웰튼 아카데미의 수업은 딱딱하고 지루하며 엄격하다. 그런 가운데 전혀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는 키팅 선생님이 등장하여 학생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든다.

자신도 웰튼 아카데미의 졸업생으로 정해진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키팅은 자유로운 수업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일깨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인정받는 것보다 스스로의 신념이 특유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선택하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또 과감히 책상을 밟고 올라서는 퍼포먼스를 보이며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보라고, 바보 같더라도 목소리를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하라고 다독인다. 그 유명한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는 말도 이 영화에서 비롯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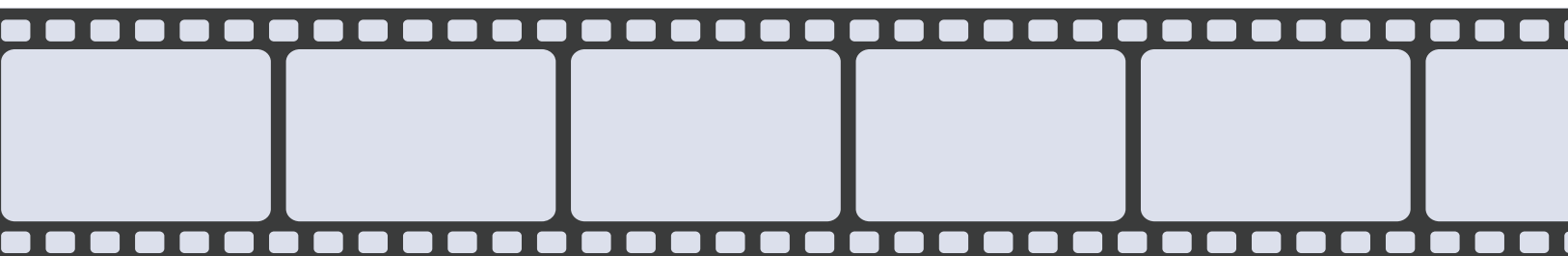
이런 키팅의 수업은 학생들을 변화시킨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던 닐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연극 무대에 설 결심을 하고, 잘난 형의 그림자에 가려져 자신감이 없던 토드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녹스는 사랑을 향해 용기를 냈으며, 찰리는 퇴학을 각오하고 학교의 규율에 정면 반박을 시도한다. 그저 정해진 틀 안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던 학생들의 변화에 학교는 당황하고 만다. 이런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학교는 책임질 사람, 즉 희생양을 찾는다. 예상대로 그 희생양은 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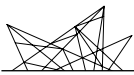


팅이 되지만 선생님을 보내는 학생들은 책상 위로 올라서며 '캡틴, 오 마이 캡틴'을 부르짖으며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십여 년 전쯤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입시교육의 폐단에 대해 침을 튀겨 가며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서론을 훌쩍 넘긴 지금 이 영화를 다시 보니 그보다 깊은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된다. 그 첫 번째는 키팅을 보며 예수님을 떠올렸다는 것이다. 키팅은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동료 선생님으로부터 경멸의 눈빛을 견뎌야 했고, 입시에 집중하라는 교장의 압박에도 시달린다. 그 고통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고통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스승으로서의 희생임은 분명해 보인다.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그를 고발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키팅은 학생들에게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온화한 표정으로 이별을 고한다. 하지만 이미 그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 교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책상을 밟고 일어선다. 2천 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도 비슷했다.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후회하며 번민했다. 지금의 우리도 다르지 않다. 교회에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키팅의 제자들이 책상을 밟고 올라섰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발판 삼아 세상 위에 우뚝 서기를 조심스럽게 소망해 본다.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된 것은 신념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부분이다. 키팅은 스스로 생각할 것에 대해 유난히 강조한다. 타인에 의해 움직이는 삶이 아닌 자신의 신념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살라는 조언이 무척 인상 깊다. 그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구절을 인용한다. '숲 속의 두 갈래 길에서 난 왕래가 적은 길을 택했고, 그게 날 다르게 만들었다'는 구절. 그리스도인이 선택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은 좁고 험한 길이다. 프로스트의 시처럼 우리는 용기 있게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 간혹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 이 정도는 관찮지 않을까? 관찮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보다 넓은 길, 쉬운 길을 선택하곤 한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찌나 불안한지 결국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들인다. 그 과정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내게 신념을 지키라는 키팅의 말은 작은 위로가 된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캡틴, 오 마이 캡틴'이라 부를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한 장 한 장 역사책을 넘기듯 폴란드를 걷다 풍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역사를 보고 나를 보고

글/사진 · 전영의

동유럽 마지막 여정은 폴란드! 그림 같은 풍경과 찬란함, 인류의 슬픈 현대사가 깃들어 있는 폴란드를 한 장 한 장 역사책을 넘기듯 걸었다.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로 이어진 동유럽 여정. 천년 고도의 고색창연한 채취는 지금도 종종 또 오르고 손짓한다. 풍경과 사람과 역사 속을 걷다 보니 어느새 '나'를 더 잘 볼 수 있는 거울이 내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나'를 들여다보고, '행복의 의미'를 배우는 것, 그것이 여행이 아닐까 한다. 나의 여행의 종착점은 언제나 '나'인 듯하다.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에서 폴란드 여행을 시작했다. 지하 9층, 327m까지 개발된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은 지금도 소금 채굴이 진행 중인 유럽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광산이다.

동서로 10km, 남북으로 1.5km, 총 연장 길이 300km! 어마어마한 규모다.

700년 전 광부들이 암염을 채취하느라 호미와 망치로 바위를 부셔 가며 한 땀 한 땀 뚫은 갱도를 관광객을 위해 설치한 나무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관광객에게 허락된 공간은 지하 130m까지다.

갱도 안은 온통 소금 왕국이다. 벽도 천장도 모두 바위소금이다. 바위 곳곳에 소금을 채취하던 광부들의 호미질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단단한 바위를 얼마나 두드려야 소금을 얻을 수 있을까? 갱도 곳곳에 배어 있는 광부들의 고단함에 마음이 아리다.

굴이 점점 깊어지면서 바깥으로 나오기 힘들었던 광부들은 소금을 채굴해서 생긴 빈 공간에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만든 크고 작은 예배당이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에 마흔 다섯 개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헝가리 공주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키파 예배당이다. 또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에는 채굴을 마쳐 생긴 소금 방이 무려 2,040여 개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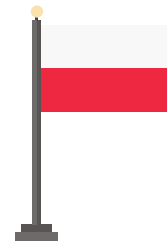
곳곳에 채굴 현장을 재현해 놓은 모형물, 성인의 기념 공간, 위인들의 조각상과 예술품들, 지금도 연주회와 결혼식이 열린다는 음악 홀 등 다양한 공간과 암염 조각상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위대함과 화려함을 품은 크라쿠프

크라쿠프가 수도였을 때 폴란드는 가장 강했다. 그 찬란함이 여전히 크라쿠프에 남아 있다. 수도를 바르샤바로 이전하기 전 폴란드의 수도였던 학문과 예술과 상업의 중심지 크라쿠프.

소금 광산의 소금이 집결되고, 소금 거래소가 있던 곳. 당시 소금은 하얀 금이라 불릴 만큼 귀했다. 늘 소금 상인들로 북적였던 크라쿠프는 맨 처음 직물을 만들어 팔며 직물 상권이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도시는 번영했다.

크라쿠프 역사 지구에 위치한 시장 광장은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 다음으로 세계에서 큰 광장이다. 시장 광장은 여행자의 발길로 들썩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여행지의 광장은 언제나 매력적이다. 시장 광장을 둘러싼 건축물은 크라쿠프 번영의 빛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시장 광



1. 세계 2차 대전 당시 85%가 파괴되었던 도시를 원형 복원한 바르샤바 '왕의 거리'. 유럽의 낭만과 감성이 묻어나는 이 거리는 영화 '피아니스트'에서 폐허의 모습이였다
2.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 내부, 소금 채굴 현장을 재현한 모형물. 지하 수백 미터까지 내려와 채굴한 소금을 운반하던 말은 한번 갱도로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한다
3. 유대인 대학살의 현장 아우슈비츠 수용소.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철문 위의 문구에서 이곳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4. 쿨리 부인의 생가를 개조해 만든 쿨리부인박물관. 쿨리 부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문을 연 박물관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장에서 두 마리의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어둠에 잠겨 가는 크라쿠프 시가지를 감상했다.

비스와 강 둔치에 위치한 폴란드 국왕들이 살았던 비벨성과 그 옆 비벨 대성당, 코페르니쿠스와 요한 바오르 2세의 모교인 야기엘론스키대학교 등 폴란드 여행의 걸출한 관광 명소를 만날 수 있는 곳이 크라쿠프이다. 세계 2차 대전 시 수도 바르샤바는 나치의 용단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크라쿠프는 전쟁의 소용돌이를 비켜 갔다. 크라쿠프가 나치의 주둔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는 도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크라쿠프의 찬란함을 볼 수 있어서 기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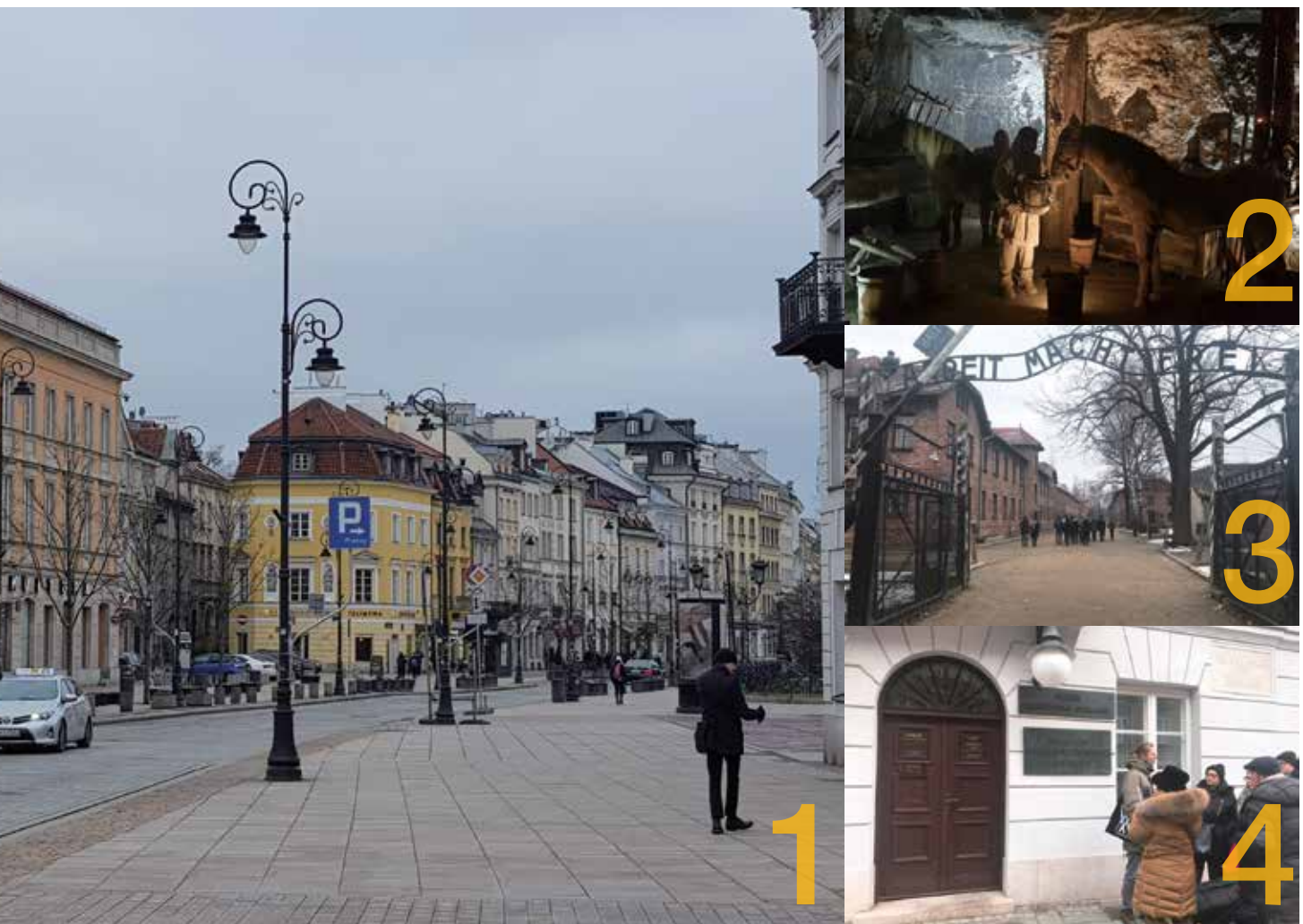
아우슈비츠 수용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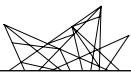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하자 그 입구까지 뻗어있는 선로가 눈에 들어왔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대인과 전쟁 포로를 싣고 유럽 전역에서 달려온 나치의 기차가 멈춰 선 곳,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용소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다. 마치 수 천 년 봉인되었던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처럼 떨리고 긴장되었다. 수용소 출입문인 철문을 통과하자 옆 담벼락에 붉은 꽃 한 송이가 매달려

있다. 누군가 두고 간 추모의 꽃인 듯싶다.

곧 3열로 열 지어 있는 스물여덟 동의 수용소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방문객들이 한 무리씩 이동하며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수용소 내의 전시 자료들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 나치에게 학살된 포로들의 참상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희생자는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나치의 생체 실험으로 신체의 일부가 잘려나간 어린이들의 사진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어린이들은 잔뜩 겁에 질려 있지만 이곳은 눈물조차 금지된 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머리카락, 의류, 안경, 신발, 모자, 벨트, 가방 등 유대인들의 소지품이 그 종류대로 유리 전시장마다 수북하다. 생체 실험실, 가스실, 시체 소각로, 목재 교수대 등을 차례로 견학하며 세계 2차 대전의 참상을 목격했다. 수용소 견학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동안 모두 말이 없다. 철문 옆 담벼락에는 들어갈 때 본 붉은 꽃이 여전히 붉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곧 꽃은 시들어 담벼락에서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다. 하지만 말을 잃어버린 채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나서는 사람들에게서 암울함을 덜어 주던 이름도 모르는 그 붉은 꽃은 동유럽 여정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BOOK AND BOOK

정리 · 강혜미



하루

저자 : 박노해 | 사진 : 박노해 | 136쪽 | 18,000원 | 출판사 : 느린걸음

민주화운동이 한창이었던 시기,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되었던 『노동의 새벽』의 얼굴 없는 시인이었던 박노해. 7년 6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1998년부터 그는 지구시대 유랑자로 다른 길을 찾아 걸어왔다. 이 책은 20여 년에 걸쳐 기록한 그의 '유랑노트'이며,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두꺼운 편지'이다. 티베트, 볼리비아, 파키스탄, 인디아, 페루, 에티오피아 등 11개 나라에서 시인이 마주한 다양한 하루가 37점의 흑백사진과 더불어 감동의 이야기로 흐른다.



복음으로 변화되라

저자 : 오성한 | 292쪽 | 13,000원 | 출판사 : 베다니출판사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복음'에 눈이 열리게 된 저자는 신앙은 물론이고 목회와 교회, 가정까지 180도 바뀌는 경험을 한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기를 희망하지만 반복되는 죄로 인해 죄책감과 실망 속에서 힘겨워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소개하고 진정한 자유함과 답답함을 뚫어버리는 시원함을 선사하고자 한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이 책이 복음과 복음으로의 삶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



농촌마을, 사람이 모이게 하라

저자 : 김용기 | 264쪽 | 15,000원 | 출판사 : 농민신문사

농민신문사의 기자로, 농협의 교육지원부서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농촌마을을 컨설팅하는 저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농촌관광 전문가로 꼽힌다. 그런 저자가 농촌마을 40곳을 꼬아 인문, 행락, 미관, 식농까지 네 개의 주제로 나누어 소개한다. 마을의 유무형 자원과 콘텐츠 발굴 및 기획 과정,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례, 특색 있는 마을 조직과 사업장, 마을 리더들의 경험과 애환 등을 담았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와는 다르게 농촌마을은 지나간 이들의 역사와 문화를 보듬어 간직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농촌마을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기를 바란다.

아사교회생

저자 : 정성진 | 276쪽 | 14,000원 | 출판사 : 두란노

한국 교회에 개혁의 바람을 일으킨 정성진 목사는 교회가 교회답고, 목사가 목사다우려면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위임목사를 은퇴하는 시점에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돌아보는 한편, 한국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목회의 본질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폐광촌 작은 교회부터 대형교회의 담임으로 섬겼던 그의 경험을 통해 올바른 교회란 무엇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나도 가끔은 시인이 되고 싶다

저자 : 정성진 | 184쪽 | 12,000원 | 출판사 : 예영커뮤니케이션

정성진 목사의 설교를 들어 보면 군더더기가 없고 설교의 흐름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저자의 타고난 글 솜씨가 한 몫을 하지 않았는가 싶다. 그런 그가 은퇴 시집을 발간했다. 착하고 선한 심장 언어로 쓴 시들은 주님을 향한 저자의 깊은 통찰과 일상이 주는 감동이 만나 내적 에너지를 채워주는 영적 비타민이 되기에 충분하다. 시편 속 다윗의 시가 그러하듯 저자의 시를 통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CROSSROAD

십자가의 길 선교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903-562019 예금주: 크로스로드
문의전화 | 031-929-3377 거룩한 빛 광성교회 사무실



CROSSROAD 사역방향

다윗의 물맷돌 사역

- 젊은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개척 학교
- 다음 세대 목회자들의 영성과 야성을 길러 '21세기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시키는 사역

통일기도의 집 사역

- 분단 칠십 년을 살아온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통일입니다.
- 도적과 같이 불시에 찾아 올 통일을 대비하여 기도의 집을 세우고 여러 단체들과 함께 주님 원하시는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

비빌언덕 사역

- 19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고아들이 한 해에 천여 명이 됩니다.
- 고아를 돌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신앙 안에서 멘토링하고 장학금과 자립을 지원하여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

기타 사역

- 선교사 지원과 목회 컨설팅 사역 등

사이트 주소 : <https://ksworkplace.com>



⋈ 구인 & 구직 페이지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섬기는 교회
2.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3.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회와 미래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5 대 비전

- 지역사회 문화중심 ● 고양파주 성시본부 ● 한국교회 개혁모델
- 북한선교 전초기지 ● 세계선교 중심센터

예배시간안내

주 일	부 에 배	오전 7:30	광 성 홀	영 아 부	1부 오전 9:00	백 합 (B1)
주 일	2 부 에 배	오전 9:00	광 성 홀	유 아 부	(영아부 1부 없음)	장 미 (B1)
	3 부 에 배	오전 10:30	광 성 홀	유 치 부	2부 오전 10:30	진 달 래 (B1)
	4 부 에 배	낮 12:00	광 성 홀	초 등 1 부	3부 낮 12:00	무 궁 화 (B2)
	5 부 에 배	오후 2:00	광 성 홀	초 등 2 부		난 초 (B2)
	(청년부)			초 등 3 부	1부 오전 9:00	비전센터2동(2F)
	농인부예배	오후 12:40	비전센터2동(2F)	초 등 4 부	2부 오전 10:30	드림교육 3-2동
수 요	찬양예배	오후 7:00	광 성 홀	초 등 5 부		드림교육 3-1동
	수요예배	오전 10:30	광 성 홀	초 등 6 부		드림교육 1동
	성경대학	오전 11:30	각 강의실	어린이영어1부	오전 9:00	비전센터1동(2F)
		오후 7:30		어린이영어2부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광 성 홀	사랑어린이	오전 10:30	민들레 (B1)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00	광 성 홀	사랑청소년	오전 10:30	비전홀 (B1)
외국인	저녁기도회(월~토)	오후 9:00	두손모아(B1)	사랑청년	오전 9:00	비전홀 (B1)
	베트남	오전 11:30	비전센터 3동	중 등 부	오전 9:00	지저스아트홀
	태국	오후 3:00	비전센터 3동	고 등 부	오전 9:00	드림교육 2동
	영어예배	낮 12:10	드림교육 1동	광성재수부	오전 9:00	다목적실(드림학교)
	주일영상에배	2/3부 [4층그라운드홀]		청년부	오후 2:00	광 성 홀
		3/4부 [지저스아트홀]				

교육안내

새 가 족 교 육	주 일 오전 11:45	비전홀	생 활 신 앙	수요일 오전 11:30	해당교육실
알 파 코 스	주 일 오후 1:15			주 일 오후 2:00	
	화요일 오전 10:00	비전홀		수요일 오전 11:30	
일대일 제자양육	주 일 오후 3:30		성 경 대 학	수요일 오후 7:30	해당교육실
	매 일	해당교육실		주 일 오후 2:00	
노 아 스 클	목요일 오전 10:00	비전홀	목 자 제 자 훈 련	수요일 오전 9:40	해당교육실

봉사기관안내

장터사회적협동조합	921-0691	작은교회전도지원센터	911-1324	사회복지법인해피월드	915-8817
광성평생교육원	929-3352	천 사 가 계	911-2923	파 주 노 인 복 지 관	943-0730
북 카 페	929-3311	클 치 유 센 터	929-3343	문산종합사회복지관	934-2000
지 예 모 아	929-3354	두 드 림	929-3330	덕양노인종합복지관	969-7781
만 나 와 메 주 라 기	929-3340	한 나 래 유 치 원	917-0551	원당종합사회복지관	966-4007
상 담 실	929-3333	광 성 드 림 학 교	929-9500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938-9801
아 름 머 리 방	929-3344	해 피 땀 크	924-8815	새꿈터지역아동센터	911-0611
을 리 브 향 기	929-3388	해 피 천 사	918-7004		

찾아오시는길



교통편 안내

●자가용

자유로 이산포 IC 진입 → 고양종합운동장(직진)
→ 이마트 사거리(좌회전 후 금촌방향 1Km 직진)
→ 교회

●대중교통 (대화역 4번출구 버스승차, 송산동 하차)

일반버스: 56, 80, 567, 600, 773, 900
좌석버스: 1500, 2000, 3000, 5000

교회를 섬기는 이들

●사역총괄

문상원목 사

●교구관리

1교구 (중보기도) 차광욱목 사
2교구 (통일선교) 주용진목 사
3교구 (제2교육) 최종운목 사
4교구 (세계선교) 김만석목 사
5교구 (국내군경·스포츠) 김은찬목 사
6교구 (사회선교 봉사) 박성준목 사
7교구 (제1교육) 이석희목 사
8교구 (예배) 우동진목 사
9교구 (선임기획행정) 문상원목 사
10교구 (전도) 나형빈목 사
안 식 년 김선호목 사
유 학 이용복목 사
송화준목 사
최영민목 사

●행 정

행 정 사 역 김 환전도사
목 회 비 서 김원중전도사
미 디 어 최성직전도사
음 영 상 최진영간 사
재 정 간 사 박유하간 사
행 정 간 사 최민선간 사
관 리 한수영간 사
박명옥집 사
박성신집 사
박대성장 로 사
이정기집 사

●교 육

제 1 교 육 이석희목 사
(교회학교)
영 아 부 송문정목 사
유 아 부 김수진전도사
유 치 부 김수경목 사
초 등 1 부
초 등 2 부 김시란전도사
초 등 3 부 최성직전도사
초 등 4 부 김원중전도사
초 등 5 부 어운선목 사
초 등 6 부 유현애전도사
어 린 이 영 어 김은하목 사
중 등 부 오성운목 사
최호영전도사
김 환전도사
김정준목 사
정상우전도사
김민석전도사
박정훈전도사
백일주전도사
정시문목 사
박정훈전도사
박정우전도사
최낙천전도사
정시문목 사
최종운목 사
성혜옥목 사
김수경목 사
최형만전도사

장애인총괄
사랑어린이
사랑청소년
사랑청년1부
사랑청년2부
제 2 교 육
새 가 족
가정, 신혼부부
노 아 스 클

●선교 및 예배

세 계 선 교 김만석목 사
사 회 선 교 박희순목 사
국 내 군 경 어 김은찬목 사
광 성 영 어 윤성로목 사
태 경 회 선교사
베 트 남 호아이전도사
통 일 선 교 노옥실전도사
능 인 정시문목 사
상 담 이소영목 사
전 도 나형빈목 사
김숙희전도사
박성택목 사
김원중전도사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독자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겨자씨.

2020 WINTER VOL.39

보내실 곳

411-80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2010년 1월 13일 통권 39호

등록번호: 고양, 라00082

발행인: 박승현

발행일: 2020년 1월 5일

인쇄: 부건프로세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031-929-3347

취재: 김용기, 김은숙, 강혜미, 유동규, 이학명

사진: 박해준, 김연철

편집: 강혜미

표지 및 본문 디자인: 조혜리, 장예지

편집팀장: 전영의



STANFORD HOTEL
SEOUL

스탠포드 호텔이 거룩한빛광성교회 성도들께 드리는 웨딩 특별 혜택

- 식대 5~10% 할인(5만원대 부터)
- 음료, 주류 20~30% 할인
- 잔치국수 서비스(70만원 상당)
- 양가 상견례 6인 식사 무료 제공
- 허니문 스위트룸 객실 1박
- 2부 연출료(Cake & Champagne 연출), 부대비용 서비스(150만원 상당)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위치 / 일산에서 15분 거리



-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 의료진 협진시스템
- ⊕ 건강검진센터 운영



든든한병원

진료내용

척추 관절 내과 검진 치과

[병원장 / 김진만 장로]

[일산가구공단 사거리] ☎ 1577-9177

일산서구 덕이지구(덕이동 1551)

www.15779177.co.kr

“소중한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일산농협 풍산역지점 개점

개점기념 이벤트

- ✓ **입출금 통장 개설 시 사은품 증정**
- ✓ **예금·적금 특판행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63 현대프라자 2층
(일산 센트럴아이파크 정문 맞은편)

문의 및 상담 031)977-8062

고양시민 이세요?

예금이자 + 배당까지
비과세예금 3천만원 지금 신청하세요!